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혼성성의 건축적 의미

- 호미 바바의 혼성성과 알바 알토 건축을
중심으로 -

**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Hybridity
: Homi K. Bhabha's Hybridity and Alvar Aalto's
Hybrid works**

2013 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강민정

혼성성의 건축적 의미

- 호미 바바의 혼성성과 알바 알토 건축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백 진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강 민 정

강민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 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주요어 : 혼성성, 상황의 혼성성, 하이브리드, 알바알토, 식민 건축
학 번 : 2011-20576

본 연구는 혼성성의 개념을 건축 설계과정에서 긍정적 요소로 분석하고자 한다. 혼성성이 어떻게 진부하고 의미론적인 참고들의 조합을 초월하여 다른 지평들의 융합을 유발하는지와 다르거나 혹은 상반되는 것과의 상호작용을 수용하고 새로운 것의 합성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고찰한다.

탈식민주의 혼성이론의 권위자인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이론을 고찰하고,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식민건축의 혼성성을 연구한 사례를 분석한다. 그 결과, 지금까지 주로 논의 되어온 식민주의 건축에 한정된 혼성성이 아닌, 건축 전체에 적용되는 ‘상황의 혼성성’ 개념을 정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 역사이론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혼성성을 살펴보고, 특히 혼성의 건축가로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알바알토의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혼성성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는 알바 알토의 건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이론가들의 분석 틀과 유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황의 혼성성을 구현하는 전략으로써의 형태, 재료, 구조의 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알바 알토(Alvar Aalto)의 작품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 어떠한 특징이 드러나는 혼성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알토 작품에서 상황의 혼성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차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지 공간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것이 어떠한 건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낸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 2 장 혼성성(Hybridity)에 대한 고찰	6
2.1. 혼성에 대한 고찰	7
2.1.1. 혼성(Hybrid)에 대한 고찰	7
2.1.2. 혼성 이론에서의 호미 바바	9
2.2.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혼성성	11
2.2.1. 호미 바바의 혼성성(Hybridity)이론	11
2.2.2.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와 혼성성	15
2.2.3. 바바의 혼성성 이론의 변증법적 의미	18
2.3. 바바의 혼성성 이론과 건축	22
2.3.1. 바바의 혼성성 이론의 건축적 적용	22
2.3.2. 아벨: 말레이시아 식민건축과 양식의 혼합	22
2.3.3. 모튼: 박람회 건축과 정치적 영향	30
2.3.4. ‘상황의 혼성성’으로의 건축	33
제 3 장 상황의 혼성성과 건축가 알바 알토	42
3.1. 건축역사에서의 상황의 혼성성	43
3.1.1. 근대 이전	43
3.1.2. 근·현대	50
3.1.3. 소결: 알바 알토에 주목하는 이유	53

3.2. 기존의 알바 알토에 대한 혼성성 연구	57
3.2.1. 로버트 벤츄리가 본 알바알토	57
3.2.2. 케네스 프램튼이 본 알바알토	60
3.2.3. 기존 알바 알토 연구의 한계	62
3.3. 알바 알토 건축의 테마와 분석방법론	64
3.3.1. 알바 알토 건축의 테마	64
3.3.2. 알바 알토 건축의 분석방법론	66

제 4 장 상황의 혼성성으로써의

알바 알토의 건축	69
4.1. 차이의 교환	70
4.1.1. Church in Vuoksenniska	70
4.1.2. Church and Parish Community Center in Riola	74
4.1.3. 커뮤니티와 외부공간	75
4.2. 차이의 공존	77
4.1.1. Municipal Library in Seinajoki	77
4.1.2. Library in Rovaniemi	78
4.1.3. 공간의 수직적·수평적 확장	79
4.3. 차이의 병치	80
4.2.1. Architect's Summer House, Muuratsalo	80
4.2.2. Villa Mairea in Noormarkku	84
4.2.3. 다양한 성격의 공간을 아우르는 외부공간	91
4.4. 차이의 엮음	93
4.4.1. Cultural Center in Wolfsbug	93
4.4.2. Town Hall in Marl	94
4.4.3. 다양한 층위의 중심	95

4.5. 소결	97
제 5 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06

표 목 차

[표 1] 혼성적(hybrid) 경향의 시대에 따른 특성	7
[표 2] 철학가에 따른 혼성성 개념의 특징	21
[표 3] 말레이시아 전통주택과 이탈리아 주택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말레이시아의 식민지 주택	23
[표 4] 영국 식민지 시대 말레이시아 Shophouse의 팔라디안 모티프와 Chiswick House의 팔라디안 모티프	26
[표 5] 이슬람 양식의 건물 내부 중정과 바실리카의 입면 디테일	28
[표 6] 노르망디 시청과 회의소의 스케치	32
[표 7]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영역별 활동내용 및 공간특성	36
[표 8] 식민지 주택의 공간변형	38
[표 9] Raphael: Villa Madama, Rome, 1520	44
[표 10] Gare de l'Est (1852), Paris, France	49
[표 11]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대회의실 평면과 단면	60
[표 12] 알바알토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	63
[표 13] Gunnar Asplund, Public Library, Stockholm	64
[표 14] Saynatsalo Town Hall	65
[표 15] 분석대상과 분석 틀	68
[표 16] 보크세니스카 교회의 배치도와 평면	70
[표 17] 알바알토의 스케치와 평면의 원호 형태	72
[표 18] 보크세니스카 교회의 공간의 중첩	73
[표 19] Church and Parish Community Center in Riola Bologna, Italy	74
[표 20] Municipal Library in Seinajoki	77

[표 21] Library in Rovaniemi	78
[표 22] 무라찰로 여름별장 배치도와 사진	80
[표 23] 무라찰로 여름별장 지붕 평면과 단면A	81
[표 24] 무라찰로 주택의 공용공간 성격 분석	83
[표 25] 마이에라 주택의 배치도와 외부 사진	84
[표 26] 마이에라 주택의 평면	85
[표 27] 거실 공간의 평치	88
[표 28] 거실1의 테라스로의 상황적인 변형	90
[표 29] Cultural Center in Wolfsburg, Germany	93
[표 30] The Town Hall in Marl, Germany	64
[표 31] 상황의 혼성성을 수용하는 차이의 상호작용으로써 공간적 특징과 현상	64

그 립 목 차

[그림 1] 탕기 영감	2
[그림 2] 승려 같은 자화상	2
[그림 3] 하이브리드(=혼성)의 스펙트럼	8
[그림 4] 양식의 혼합	24
[그림 5] Typical Chinese Shophouse of Malaysia	25
[그림 6] Former Selangor State Secretariat	27
[그림 7] 정치적 영향에 의한 박람회 건축의 혼성화	31
[그림 8] 말레이시아 전통마을의 배치 형태	34
[그림 9]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내부공간 사용	34
[그림 10] 쿠알라룸푸르의 고등법원	39
[그림 11] Reconstruction of the Villa Madama by Percier and Fontaine	43
[그림 12] 상황의 혼성성을 수용하는 내부 공간	46
[그림 13] Synopsis of Roman Temples, <i>Recueil et parallele des</i> <i>edifices de tout genre</i> ,	48
[그림 14] 보크세니스카 교회의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 공간과 그것이 반영된 외관	57
[그림 15] 볼프스부르그 문화센터 중정부분과 외관	58
[그림 16] 형태에 따른 외부와의 관계	82
[그림 17] 중정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모습	84
[그림 18] 벽난로 옆 중심자리	87

제 1 장 서론

하이브리드(hybrid)란 서로 다른 것의 특성들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무언가를 섞는 행위를 금기로 여겼다. 잡종이라는 단어는 경멸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혼성이란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불순한 짓이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문화나 분야가 교류·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대상이 다른 기능과 더 나은 가치를 가지게 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성을 그림에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고흐는 일본 판화에서 자신의 내면의 격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밝고 선명한 색채, 비대칭의 대담한 구도, 명암을 제거한 평면성의 강조 등을 그의 그림의 특징으로 발전시켰다. 여기에 소용돌이치는 붓질을 본인이 개발하여 고흐 화풍이라 불리는 특징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자연의 생명력을 중시하고 외경시 했던 일본인의 자연관에서 영향을 받아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표현한 걸작들을 만들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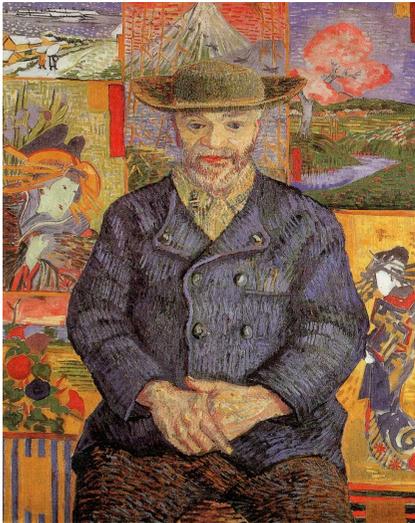


그림1 탕기 영감

이미지 출처: www.vggalle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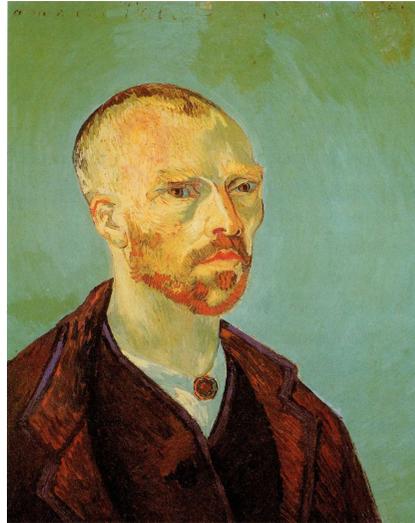


그림2 승려 같은 자화상(bonze)

이미지 출처: www.vggallery.com

고흐는 일본 판화의 열혈 팬이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당시 유행했던 일본 판화에서 찾은 것이다. 실제로, 몽마르트의 탕기 영감을 그린 초상화의 배경에도 여러 장의 일본 판화가 걸려있으며, 현재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흐 미술관에는 고흐와 고흐의 동생이 수집했던 400여 점의 일본판화가 소장되어있다. 고흐가 활동

하던 시대에는 고희뿐만 아니라 모네, 드가, 르누아르를 비롯한 인상주의 대표 예술가들이 일본 판화에 심취했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조형 실험에 필요한 혁신의 실마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¹⁾ 서양화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색채, 선, 구도 등의 특성에 예술가들은 매력을 느꼈고, 특히 고희는 일본 판화의 애호가, 수집가에 머물지 않고 우키요에의 주제와 기법을 차용한 작품들을 창작하는 단계를 거쳐 서양미술과 일본 미술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그림세계를 구축하였다.

요즈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전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고희의 예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례에서 서로 다른 분야나 문화 등의 혼성으로 인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뛰어난 생산물이 탄생했다. 제품이나 물질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기술이나 가치 등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시 혼성의 과정이 일어나고 다시금 새로운 것들이 등장한다.

건축에서 역시 혼성성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조나 재료는 오랜 시간동안 서로 다른 것이 접목되고 섞이면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또 하나의 건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와 구조가 섞여서 전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축에서의 혼성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긍정적인 요소로서 받아들여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건축의 4대 거장이 활동하던 시기까지는 순수한 것에 대한 추구하고 관심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대건축 이후의 건축역사이론의 흐름에서 혼성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새로운 건축으로의 전환을 꾀했다. 이후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 생겨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이질적 프로그램의 혼성성, 이질적 형태나 건물의 혼성성이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혼성성이 건축과 도시에서 나타날 때에는 단순한 섞임, 통합으로는 결론 내릴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존의 건축에서의 혼성성은 단순히 섞이는 것 자체에 주목하여, 양식과 형태, 구조, 재료 등 기본적인 단계

1) 이명옥, 이명옥의 크로싱, 21세기북스, 2011

에서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성성을 창조의 긍정적 요소로 바라보는 혼성성 이론의 권위자이자인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혼성성 개념을 고찰하고, 혼성적인 작품세계를 가진 건축가 알바알토의 작품 분석을 통해 건축에서의 혼성성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건축에서 바라보는 혼성성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이해와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혼성성의 일차원적이고 표면적 이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려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호미 바바의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건축에서의 혼성성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먼저, 바바의 이론에서 다르거나 혹은 상반되는 것과의 상호작용을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어떻게 혼성성이 진부하고 의미론적인 기호 또는 기표의 조합을 초월하여 다른 지평들의 융합을 유발하는지 연구한다.

바바의 혼성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바바의 이론을 건축에 적용하여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고, 바바의 혼성성의 건축적 적용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의 한계와 건축 전반의 적용에 대한 특징인 상황적 혼성성을 밝힌다. 그 후 건축역사이론에서 근대이전과 근·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상황적 혼성성을 찾아보고, 이 과정에서 특히 혼성성의 측면에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알바 알토(Alvar Aalto)에 주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알아보고, 그의 작품을 혼성성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바바의 이론보다 알토의 건축이 먼저 출현하지만, 바바는 인도와 영국 사이의 식민지 역사를 예로 다룸으로서, 알토의 건축보다는 선행하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러므로 바바의 혼성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에서의 상황적 혼성성을 살펴보고, 이를 알바 알토의 건축 작품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알바 알토의 작품을 교회, 도서관, 주거, 공공 건축 의 네 갈래로 나누어 대표작을 두 작품씩 선정하고, 상황적 혼성성을 수용하는 혼성적 건축의 공간적 특질을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 알바알토의 건축 전반에 나타나는 외부공간 조성의 의지가 상황의 혼성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힌다.

제 2 장 혼성성(Hybridity)에 대한 고찰

2.1. 혼성(hybrid)에 대한 고찰

2.1.1. 혼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서로 다른 분야, 장르, 시간, 지역 간의 이동과 혼성성은 우리 삶의 일상적 조건이며,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우리가 이용하고, 거주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이 혼성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영역에서 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혼성 개념의 시대에 따른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20세기 초에는 비교적 근접한 분야나 같은 분야 내에서의 혼성이 일어난 반면에, 점점 더 혼성의 범위가 넓어져 1990년대에는 시간적, 지역적, 장르적 혼성과 함께 ‘하이브리드(=혼성)’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배경	특성
다다-초현실주의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성 상실 자본주의 논리에 반발	미술과 일상생활의 접목 기존기법과 다른 기법 혼합
팝아트 (1960년대)	대중문화의 확산 매스미디어의 발달 모더니즘에서 탈피	미술과 대중문화의 혼합 예술작업의 조합 타 장르와의 혼합
포스트 모더니즘 (1970년대)	모더니즘의 극단적인 장식성의 배제와 기능주의 추구에 반발	이중 코드화(엘리트와 대중) 절충주의(모더니즘과 고전양식)
퓨전 (1990년대)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경향	시간적, 장르적, 지역적 하이브리드

표 1 혼성적(hybrid) 경향의 시대에 따른 특성

출처: 정소미, 이연숙, 다문화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하이브리드(=혼성)’를 사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한 결과물이 있는 융합(fusion)과 서로 다른 개체가 합쳐서 하나의 개체를 생성하지 않고 같이 위치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는 콜라주라는 두 가지 하위개념을 수평선의

양쪽 끝으로 하여, 섞이는 방식의 정도에 따라 수평선상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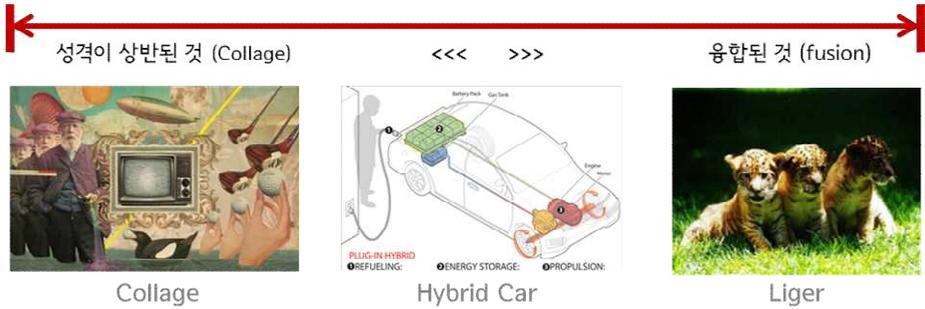


그림 3 하이브리드(=혼성)의 스펙트럼

일상적 관계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붙여 놓음으로써 상상하게 만드는 콜라주(collage)는 서로 다른 것을 섞어 버리는 것이 아닌, 같이 두어 비현실(surreal)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는 수법이다. 반면에, 융합(fusion)의 개념은 두 가지 카테고리가 합쳐져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합치되기 이전 세계의 카테고리를 인식하는 사람만 융합을 인식할 수 있다. 카테고리의 뚜렷한 구분을 가지므로 구분되지 않는 세계의 결합이나, 융합으로 인해 기본 카테고리를 바꿀 수는 없으며, 독립된 하나의 개체가 된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조합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혼성 개념의 시작은 언어학이나 생물학, 식민지 시대에 썼던 중의적인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²⁾, 순수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순함과 불결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런 혼성은 건축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서로 다른 문화의 갑작스러운 만남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적 혼성은 유럽에서 시작된 식민주의로 인해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혼성은 단일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역 간 이동으로 인한 소통과 교류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이분법적 지배를 비판하고 새로운 형식의 전략으로 가능성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2) 바바가 말하는 혼성성, 양가성, 흉내내기, 제3의 공간 등과 같은 용어들은 모두 이 공간을 사고하기 위한 원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2.1.2. 혼성 이론에서의 호미 바바

20세기 후반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타자’에 관한 유럽 지식의 계보³⁾를 보여준 이후,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호미 바바 (Homi Bhabha)와 같은 인도학자들, 그 외의 아랍학자들과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그룹이 ‘타자’에 대한 이론을 따르고 발전시키게 된다.⁴⁾ 이들이 연구하는 이론들은 서구 담론이 지닌 절대적인 체계나 고정된 중심의 세계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거부하고 해체하는 방법론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탈식민주의 이론가로 가장 인정받는 호미 바바는 혼종성, 모방, 차이, 양가성 등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개념들을 발전시켰다. 이 개념들은 모두 식민지배와 식민피지배간의 불안정한 관계를 보여 주는데, 이는 과거의 서구 열강과 식민지 사람들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근대 민족국가 시대에도 문화들 간의 접촉과 소통이 있었으나, 주로 한 민족이나 국가 내부의 문화적 본질을 탐구하고 동질적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다른 문화와의 만남과 혼성 현상을 논의의 밖에 위치시킴으로 인해 한 문화가 다른 문화들과 교류하는 혼성성은 이론적 탐구에서 소외되어온 것이다. 즉, 지금까지 문화 정체성에 무게를 두는 문화연구는 민족문화의 본질을 구성함에 있어 그 경계를 통제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문화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탈식민주의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 할 수 있는 혼성성은 문화와 자연, 이성과 감성, 자아와 타자의 서구세계의 대표적인 이분법뿐만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주자와 원주민의 식민역사의 이분법에서도 자유롭다. 상호간의 관계로 위치를 결정하는 확정적인 이분법적 분석체계를 해체하는 것이다.

바바는 혼성성을 “식민권력과 그것의 변화하는 힘들 그리고 고정성을 낳는 생산성의 기호들”이며, “차이의 정체성을 통해 식민적 정체

3) Edward W. Said, *Orientalism*, 1978

4) 송병선, *카리브 해의 혼종성과 정치적 의미*, 2004

성의 전제를 재평가”⁵⁾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라고 말한다. 그의 이론적 중심은 근대적 식민공간 내부의 혼성성, 특히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무의식적인 문화공간에 있다. 이 공간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물리적 힘이 부딪히는 대립적 공간보다는, 지배와 저항의 대립이 끊임없이 섞이고 나뉘는 공간에 가깝다. 이로 ‘문화적 차이’와 ‘타자성’이 출현하고, 식민주의자의 위상과 그것에 근거하는 동질적이고 일방적인 권위가 불안해지며, 식민공간의 양의성과 혼성성이 부각된다.⁶⁾ 서로 다른 문화들과의 만남을 중심에 두는 혼성성은 외부 문화와의 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것은 단순히 외래문화를 이식(transplantation)하는 조합으로서의 혼성성이 아니라 외부의 문화적 역량과 주체적 능력에 따라 그것을 다시 전환하고 재가공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를 강조한다.

여전히 바바의 이론이 주목받은 것은, 그것이 과거의 식민지배 역사와 문화의 관계가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혼성성은 새로운 문화적 주체들과 정체성을 생산하는 핵심으로, 생물학에서 말하는 순종의 반대 개념이 아닌, 기본적으로 문화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순히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개념이다. 이는 사물을 형성하는 근원이 많은, 또는 그런 성질을 가리키는 ‘다원성’의 개념과, 두 가지 이상이 단순히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의 ‘복합성’의 차원과는 차별화 되는 개념인 것이다.

5) Bhabha, 112

6) 바바가 말하는 혼성성, 양가성, 흉내내기, 제3의 공간 등과 같은 용어들은 모두 이 공간을 사고하기 위한 원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2.2.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혼성성(Hybridity)

2.2.1. 호미 바바의 혼성성이론

호미 바바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본질적인 ‘번역’과 ‘양가성’의 개념을 통해 그의 혼성성 이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두 개념은, 기본적으로 식민주의적인 권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바바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 번역(translation)

번역의 과정에서 의미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온전히 옮겨 갈 수 없으며, 번역된 책이 다른 언어와 문화의 독자에 의해 다르게 해석된다. 번역의 개념의 ‘원본’은 바바의 이론에서 식민지 지배자의 문화에 해당한다. 이 때, 식민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번역을 수반하는데, 서로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할 필요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부터, 식민지 지배를 위해 번역될 필요가 있는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체제, 그리고 건축과 도시계획 역시 문화 우월성의 상징과 사회정치적 통제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문명을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가르치고, 피 식민자들이 사는 원시적인 형태의 집 보다 더 좋은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건축을 통해 식민지배자들의 삶의 표준도 전달한다.⁷⁾

이러한 식민 상황에서 번역은, 두 동등한 언어나 문화 간의 교환 현상이 아니다. 유럽의 권위를 구축하고 행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인의 대립자로서의 피 식민자들을 타자화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며, 타자의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즉, 식민지 사람들을 옷을 입지 않고, 검고, 나약하며, 성적인 특징이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야만인으로 표상하여, 유럽 기준의 규범과 관계성 안에서 유럽인과 비교 대상인 열등한 존재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확립한 후, 본국의 언어, 지

7) Felipe Hernandez, Bhabha for Architects, Routledge, 2010, pp.24-5

식, 기독교 등을 교육하여 서구 문명의 혜택을 입증하고 자신들의 우월한 문화를 유포하였다. 교육을 통해 식민화된 주체를 유럽인의 모사로 변형시키는 것은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식민지배자와 피 식민자 사이의 차이의 폭을 줄이게 된다. 이러한 차이의 제거는 바바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양가성’으로 논의를 이어가게 해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바바는 식민주의 번역의 과정에 내재된 모순과 양가성의 영역을 조명하기 위해 언어들의 유사성 보다는 차이를 통해 서로 보충한다는 개념에 관심을 둔다.⁸⁾ 언어로 표현될 수 없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없는 번역불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자 자신들의 체계로 온전히 통합할 수 없게 되고, 차이를 심화시킨다. 이런 현상을 바바는 ‘번역은 문화소통이라는 수행적 속성을 띤다.’⁹⁾고 단언한다. 번역불가능성에서 생기는 두 문화 간의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가 끊임없이 교환되고 재구축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번역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바바는 인디언들이 영어책을 발견한 이야기를 중요한 예로 들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영어책을 발견한 인디언이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한 행위는 종교적, 사회적 상징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이므로 그 의미를 다 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구의 문화적이거나 역사적 의미 등이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 인디언들은 번역본을 보면서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 즉 바바의 번역이론은 원본이 번역을 통해 만들어진 번역본은 새로운 문화체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 양가성(ambivalence)

양가성은 정신분석에서 두 대립된 본능이나 욕망, 특히 사람과 미움의 공존을 가리킨다.¹⁰⁾ 하지만 바바의 관점에서 그러한 양가성은 주체

8) Felipe Hernandez, Bhabha for Architects, p.35

9) Bhabha, 1994, p.228

10) Felipe Hernandez, Bhabha for Architects, p.42

를 식민화된 자와 식민지 지배자 간의 중간입지에 위치시키는, 포함과 동시에 배제의 양가적 과정을 통해 식민지 주체를 구축하는 방식이다.¹¹⁾ 식민자들이 여러 가지 본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자신들의 체계 안에 포함하기 위해 피 식민자들을 교육한다. 하지만 피 식민자들이 식민 지배자들의 교육을 통해 식민 지배자들과 비슷하게 되는 순간 식민 지배자와 피 지배자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지 않다고 부인해야 하는데, 이것은 피 식민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교육 되면 자신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정당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배적인 체제에 통합하려하면서 그와 동시에 배제하는 양가성은, 자신이 만든 체제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인해 또 다른 위협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바바가 양가성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은, 식민주의 권위의 구축과 행사에 내재된 모순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권력의 권위를 교란시키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건축역사책의 서술방법은 전 세계의 건축생산을 유럽의 과거와 연계시켜 판단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¹²⁾ 대부분의 비서구권 건축들은 유럽 건축규범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러한 체계에 들어맞는 사례들만 기록되고 알려지며, 그것에 따르지 않는 건물들은 배제하므로, 비서구권 건축들 중에서 유럽이나 북미의 형식에 유사한 건물들만 역사에 기록되고 인지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 건축의 계보를 확립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 아니라, 권위를 부여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식민건축에서의 양가성은 서로 다른 문화의 건축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는 데에서 발견된다. 식민지의 토착 모티브나 건축적 요소들이 자국의 건축에 도입되어 사용된 경우는 비판하고 수용하지 않으며, 자국의 유럽 건축의 법칙에 따라 지어지면서 토착건축의 요소를 반영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역사에 기입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것은 즉, 식민화 이전 건물들을 동질화 차원에서 자신들의 보

11) Ibid, p.5

12) Ibid, p.51

편적 역사에 기입하면서 그와 동시에 거부하는, 건축역사에서의 식민주의 담론의 양가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혼성성(hybridity)

바바는 앞에서 언급한 번역이론과 양가성을 바탕으로 언어, 문화, 정체성이 이질적이고 양가적이며, 언어, 문화, 정체성이 고정적이거나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이유로 언어와 문화 등은 온전히 섞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상호작용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 혼성화는 항상 지속되는, 끝나지 않는 문화 상호작용 과정으로, 문화는 그것을 통해 계속 존재하게 된다. 바바에게 이러한 혼성화는 가장 강력한 문화 생산성의 기호이다.

식민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의 우월성을 확립하기 위해 피 식민자들은 열등하다는 성격을 제시하고, 유럽 정체성의 개념과 통일하기 위해, 동질화 한다. 그러나 바바는 혼성성을, 식민지 지배자가 차이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하나의 동질적 문화라는 가정을 뒤엎는 이론으로 제시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원형의 문화, 근원적인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바바의 관점에서 혼성성은, 하나의 원형과 순수성이라는 아이디어를 훼손하는 문화 생산성의 기호인 것이다.

한편, 혼성성은 요소들의 직설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을 나타낸다.¹³⁾ 한 번에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하나의 물건이 아닌, 긴장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화는 부분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바의 혼성성 개념에서 하나의 핵심 내용이다. 바바는 번역된 책을 읽은 원주민 들이 제시한 질문은 원본이 속한 문화체계 밖의 다른 입점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답을 할 수 없다고 서술한다. 문화는 항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완성된 문화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문화는 항상 부분적이기 때문에 소수의 문화도 존중되어야 하고, 소수의 문화가 각자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것을 수면위로 끌어올려주는 개념으로 작용한다.

13) Felipe Hernandez, Bhabha for Architects, p.67

바바의 혼성성은 문화가 합쳐져서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혼성적인 개체가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혼성화의 사이공간에 머무는 요소들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개념으로, 차이의 증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성성은 개념은 섞여있는 하나의 혼합물로 이해하면 안 되며, 여러 주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멈추지 않는 생산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2.2.2.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와 혼성성

탈식민주의 이론은 식민화된 자와 식민지 지배자 간의 불평등한 권력 배분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사회적 전략을 드러내기 위해 역사를 다시 읽는 것을 가리킨다.

유럽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간 식민주의는 타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대항하는 식민지 국가를 탄생시켰다. 이때, 정복자들은 기독교를 보급하는 것으로 미개한 식민지 사람들에게 ‘신의 구원’을 가져다준다고 정복의 명분으로 종교를 적극 활용했다. 기독교가 서양의 세계 침략에서 하나의 무기, 혹은 구실의 역할을 하면서 서양의 침략 행위의 정당성과 일방적인 시선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서양의 관점에서만 이해되고 관찰되었던 식민주의 역사를 뒤집어 보는 것이 탈식민주의 이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시각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에서 중동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배자가 피 지배자를 본다는 것. 이러한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동에 대한 이야기와 이해방식들이 서양의 테두리 안에서, 닫힌 그룹 안에서만 계속해서 논의가 반복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중동에서 서양을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중동지방 사람들의 문화가 정말 어떠한지 그 진실과는 상관없이, 서양에서 중동을 보는 시각들로만 담론을 형성해서 만든 학

문적 체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탈식민주의 이론의 바탕에는 중동은 스스로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보는 것(gaze)’은 진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현(representation)’을 보는 것이며, 진짜 중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다. 또한, 중동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압적인 ‘시선(gaze)’이다. 탈식민주의는 이러한 억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식민지 사람들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탈식민주의와 혼성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식민의 주체는 식민의 대상에게 자신들의 체계와 사상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피지배자 그룹이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게 되면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펼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식민주의 안에서는 혼성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식민 지배의 대상이 식민의 주체와 거의 같지만, 완전히 같지 않는 위치에 있게 함으로써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바바가 말하는 “‘Almost same’, not ‘same’”¹⁴⁾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양분법 속에 위치시킬 수 없으며, 혼성성이 식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대변하게 된다.

탈식민주의에서 혼성성은 하나의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는 둘 이상의 요소의 단순하고 직설적 혼합이 아닌, 다중적인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문화 주변부와 문화들 사이에서 출현하는 문화 생산성의 현장을 말한다. 즉, 문화요소들이 끊임없이 다시 명료화 되고 다시 구성되는 공간이다. 또한, 곧 문화요소들이 자체의 관계성 안에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 변화하는 문화 재-명료화 과정인 혼성화도 표현한다. 문화 혼성과 과정은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지속 하고, 실제로 차이를 증식시킨다. 그 결과, 문화 혼성성 개념은 이분법적 문화 분석 체계의 파괴를 돕고, 문화가 순수하고 동질적이라거나 한 때 그러했다는 생각을 뒤흔들고, 문화차이의 끝없는 증식을 예시함으로 인해 권

14)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07.

위를 흘뜨리고, 헤게모니적인 문화 범주와 체계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화 실행들을 돕는다.

또한 바바는 언어와 문화는 적어도 직설적인 생물학적 의미가 아닌 측면에서 결코 온전히 섞일 수 없으며 끊임없이 상호작용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문화의 영속성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그래서 문화 혼성화는 결코 끝나지 않는 항상적인 문화 상호작용 과정을 나타내는데, 문화는 그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바바에게 혼성화는 가장 강력한 문화 생산성의 힘인 것이다.

Hybridity is the sign of the productivity of colonial power, its shifting forces and fixities; it's the name for the strategic reversal of the process of domination through disavowal(that is, the production of discriminatory identities that secure the 'pure' and original identity effects. It displays the necessary deformation and displacement of all sites of discrimination and domination. It unsettles the narcissistic demands of colonial power but reimplicates its identifications in strategies of subversion that turen the gaze of the discriminated back upon the eye of power. 15)

위의 인용에서, 혼성성은 요소들의 어떤 직설적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식민주의 권력의 생산성과 그리고 그 과정에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바바는 혼성적인 대상은 인식론적 분류를 곤란하게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즉, 혼성물은 하나의 특정한 형태도 아니고, 두 가지 혹은 그 이상 요소의 직설적 융합에서 기인하는 어떤 산물이나 부산물도 아니다. 혹은 바바가 설명하듯, 혼성성은 문화들 간의 긴장이 '변증법적인 작용에 의해 해결되는 제삼 용어'가 아니다. 이는 혼성성은 문화들 간의 긴장의 요인이자 결과이다.

15) Homi K. Bhabha, Signs Taken for Wonders, Roudledge, 1994, p.112

2.2.3. 바바의 혼성성 이론의 변증법적 의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바의 혼성성 이론은 서로 다른 개체가 만나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변증법의 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변증법 'A(정) + B(반) = C'(합)'의 과정은 철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였는데, 상대적으로 C(합)을 중요시 한 헤겔(G.W.F.Hegel)과 달리, 가다머(Hans-Georg Gadamer)와 니시다(Nishida Kitarô)는 A와 B의 특성을 도외시 하지 않고 주체 각각의 개별성에 초점을 두었다. 바바(Homi Bhabha)는 이에 동의하면서, A와 B의 각각의 특성이 변형되는 변증법의 과정으로 혼성성을 바라보았다.

Research in the human science cannot regard itself as in an absolute antithesis to the way in which we, as historical beings, relate to the past. At any rate, our usual relationship to the past is not characterized by distancing and freeing ourselves from tradition. Rather, we are always situated within traditions, and this is no objectifying process.¹⁶⁾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역사의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전통 속 지평 '안'에 있으므로 전통을 객관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떠한 상황 안에서만 지평이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생성된 'C'는 고정되고 완결된 것이 아닌 잠재적이며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역사에 영향을 주는 개체이다. 즉, 가다머는 변증법 과정에서의 순환성을 긍정하고, 생성의 가능성을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C는 A와 B의 지평에 속한다는 것으로, 이를 “지평의 융합(Fusion of horizon)” 이라고 한다. 만약, 두 개의 지평이 있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개체는 두 개의 지평 밖이 아닌,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평의 융합’은 하나의 지평 안에 존재하는 주체가 다른 융합

16)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Rev. ed., Revisions translation by Joel Weinsheimer and Donald Marshall. Continuum Intl Pub Group, p.282

을 생산하는 변증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가다머의 주장 유사하게, 니시다(Nishida Kitarô)는 주체가 지평과 함께 통합된다고 이해하였다. 하지만, 니시다는 A와 B 각각의 차이와 구체성 인정하면서 다양한 대립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C가 존재하지 않는 변증법을 주장하였다. 다시말해, A와 B 두 항이 있고 C가 있는 것이 아닌 역으로 C로 부터 A와 B 두 항이 나타나며, 즉 A와 B 두 항의 공존적 존재가 가능한 이유는 C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Dialectical (subnational) in a Platonic or Hegelian sense;
it does not postulate another level of being or noematic
determination.¹⁷⁾

니시다는 개별성을 가진 둘을 감싸는 것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공(Nothingness)’ 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대립적인 것을 하나로, 총체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교환 가능한 대립을 주장한다. 그의 변증법의 구조는 두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개체가 위치하는 하나의 층위와 이 층위의 개체들을 아우르며 감싸는 다른 층위가 그 아래 존재하는 상황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개체들의 층위와 그것의 배경과 바탕으로써의 층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각각의 개체를 인식하고 구별 할 수 있는 것은, 개체가 위치하는 하나의 장을 먼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것은 하나의 장(field) 안에 있으므로 이는 객관화 시킬 수 없는 장소이며, 일종의 일반자로 규정 할 수 있는, 개별 개체를 포함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장소인 것이다.

17) David A. Dilworth, “ Introduction and Postscript,” in Kitaro Nishida, *Last Writings: Nothingness and the Religious Worldview*; David A. Dilworth, tra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앞의 두 변증법적 과정에서 각각 개체의 개별성과 지평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바바가 말하는 혼성성은 서로 다른 문화의 단순한 적응의 형태가 아니다. 즉, 변증법적 과정에서 C는 요소들의 직설적 조합이 아니며, 하나의 특정한 형태도 아니고, 요소의 직접적 융합에서 기인하는 어떤 산물이나 부산물도 아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에 주목한다. 혼성화의 사이 공간에 머물고 있는 요소들 간의 긴장에 의해 문화적으로 혼성적인 생산품들이 항상 생산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바바의 이론에 따르면, 그가 말하는 혼성성은 새로운 변종이 생성되는 것, 즉 C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종으로 인한 생성, 생성 결과물 자체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대립, 긴장 등이 혼성성의 주요 성질이자 특징인 것이다.

앞서 혼성의 유형을 융합(fusion)과 콜라주(collage)를 혼성이 일어나는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는 개념이라고 정리 한 것을 바탕으로, 니시나와 바바가 말하는 혼성성을 정리해 보면,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니시다는 두 개체가 융합되어 하나의 개체로 고착화 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개체들이 섞이지 않고 공존하게 하여 긴장상태를 유발함으로써 어떠한 창조적 영감을 주는가를 강조하였다. 이는 콜라주에 빗대어 이해할 수 있는데, 생성물이 없이 서로 다른 개체를 병치하여 동시에 인식할 수 있고, 서로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기도 하여 우리에게 상상력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창조의 에너지를 주장한 것이다.

바바는 두 개체의 합이 있지만, 새롭게 생성된 개체가 고정되어있지 않고 다른 개체와 다시 혼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개체가 나타나는 생산성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혼성성의 영역에서 융합(fusion)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개체간의 관계 자체가 여러 가지 차이의 생성물로, 다른 개체를 만나서 다시 차이의 생성물이 탄생하는 생산의 메커니즘을 긍정한 것이다.

따라서 두 개체가 융합되느냐 아니면 합이 없이 공존하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 바바와 니시다 모두 개체의 긴장상태에 주목하여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를 지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 B	C	특징
가다머	개별성	잠재적인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성 긍정 - 생성의 가능성
니시다	차이와 구체성	'C'가 없는 변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 가능한 대립 - 대립의 공존 > - 개별 개체를 포함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장소 - 상상력을 열어주는 창조적 에너지 긍정
바바	개별성	생산 과정의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평의 융합 - 과정에서의 갈등, 긴장 - 차이의 증식 - 다르거나 상반되는 것과의 상호작용 - 새로운 창조의 상상력

표 2 철학가에 따른 혼성성 개념의 특징

2.3. 호미 바바의 혼성성 이론과 건축

2.3.1. 바바의 혼성성 이론의 건축적 적용

바바의 관심은 2007년 아카칸건축상¹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국가의 지정학적 경계를 초월하는, 또 하나의 고유한 시간성, 또 하나의 차원이 지금의 국가들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질서의 이동성으로 인해 경계들의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시간성, 혹은 국가의 대안적 차원이 구현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축은 더 이상 단순히 특정지역과 연관시킬 수 없으며, 어떤 특정 부류의 형태적 특징 곧 하나의 상투적 이미지와도 연계시킬 수도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바바의 혼성성을 바탕으로 건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소 식민주의 건축에만 국한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하지만, 바바의 혼성성이 식민주의 상황에서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상이한 형태들, 재료들, 그리고 장식들을 결합하는 건축과 도시를 이론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식민 상황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에서도 유효한 도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바의 혼성성을 바탕으로 건축 사례를 분석한 아벨과 모튼의 연구를 살펴보고, 바바의 혼성성 이론이 건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며, 건축에서 어떠한 새로운 면을 밝혀 낼 수 있는지 알아본다.

2.3.2. 아벨: 말레이시아 식민건축과 양식의 혼합

펠리페 에르난데스(Felipe Hernandez)는 바바의 이론을 건축 형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크리스 아벨(chris Abel)의 연구를 혼성성 이론으로 건축을 바라보는 중요한 예로 다룬다.

아벨은, 흔히 우리가 건축 언어나 양식을 참고하는 순수한 건축적인 형태보다, 건물과 사회구조의 관계에 대해 건축의 혼성 형태들이 더 많

18) 이슬람교도들이 중요한 입지를 점유해 온 예외적인 건축들을 인정하기 위해 1997년 창안한 건축상

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식민 건축을 바바의 혼성성 이론으로 바라보았다. 식민 건축의 사례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 나타나는 영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혼성성을 분석하면서, 말레이시아 식민건축을 바라보았다.

① 영국 식민지 주택

아벨의 연구 중 첫 번째 사례는 말레이시아 페낭 섬에 위치한 전형적인 영국 식민지 주택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팔라디오 빌라에서부터 이어져 온 유럽의 빌라 유형으로, 아벨은 이를 팔라디오의 빌라 서버바나(Villa suburbana)의 기본형태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빌라 유형이 말레이시아의 지역적·문화적 상황에 맞게 변형된 사례이다.



표 3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위, 좌)과 이탈리아 주택(위, 우)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말레이시아의 식민지 주택(아래).

먼저, 아벨이 첫 번째 사례인 영국식 식민지 주택에서 전통적인 빌라 유형이 말레이시아의 환경에 맞게 변형된 사례 말레이시아 토속 주거를 살펴보면, 대규모의 사회적, 경제적 단위의 작은 촌락(Kampung) 내에서 한 세대씩 각각 집을 짓고 거주하는 형태로,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잘 맞게 진화되어 유지되어 왔으며, 지금도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전통 주거는 몇 채의 집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특별한 규칙이 없이 분산적으로 배치되고, 집 내부에서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집 외부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며, 바닥에서 한 층 띄워진 형태로 주택의 공간이 구성되는 것, 그리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목재로 집을 지탱하는 구조로 사용하고 야자 잎으로 엮은 지붕을 엮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특징은 말레이시아의 열대성 기후와 환경에 맞추어 집과 집 사이, 공간과 공간사이에 바람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교차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말레이시아 식민지 주택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빌라 유형의 평면, 비례, 구성요소 등의 기본 형태는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특징들을 변경시켜 말레이시아의 기후와 주거형태, 사회적 환경에 맞게 지어졌다. 현관의 위쪽 2층의 외부공간은 내부 공간으로 바뀌었고, 2층의 독립 기둥들은 벽기둥과 치 모양의 창 3개로 바뀌었다. 이렇게 실내로 바뀐 2층 부분에는 일광에 대한 노출과 열대성 비는 막고 바람은 통하게 하기 위해 창가에 설치할 구조물이 고안되어 설치되었다.



그림 4 양식의 혼합

이렇듯 첫 번째 사례에서 아벨이 어떻게 영국 건축가들이 어떻게 지역적인 말레이 주택에서 취한 형태 요소들을 이탈리아 빌라 유형으로 점진적으로 통합시켰는지 연구한 결과를 알 수 있다 .

② Shophouse

두 번째 사례는 ‘고전 건축언어가 비서구권 건물 유형과 사회적 형태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한 예로서, 중국인이 지은 ‘Shophous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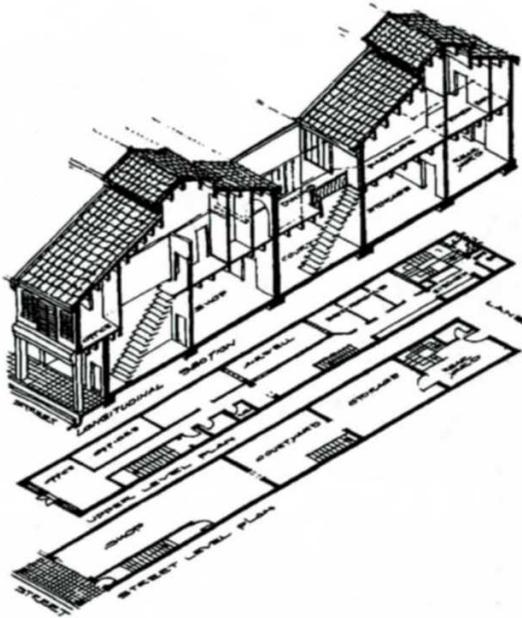


그림 5
Typical Chinese Shophouse
of Malaysia.
Cross-sectional isometric.
From Gurstein, 1984.

‘shophouse’는 도로를 면한 1층에 상점이 위치하고 2층에 상점을 운영하는 가족들이 생활하는 주거 형태이다. 주로 대가족의 중국인들이 거주하는데, 경제생활과 가족생활이 밀접이 연관된 주거방식이다. 가로에서 손님들이 바로 1층의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이 배치되었으며, 2층은 1층 상점 앞의 길을 덮을 수 있도록 돌출되어 비와 일광을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 튀어나와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five-foot

way'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 건물에서 고전적인 기둥들은 구조체로서 2층까지 연결되어 건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케이드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림5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채의 'shophouse'가 모여 하나의 통합된 건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Venetian window¹⁹⁾'가 2층에 세 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거리를 면하고 있는데, 가운데 창은 아치형태의 윗부분이 이루어져 있지만, 양 쪽의 두 창은 평평한 상인방을 사용하였다.²⁰⁾ 이는 동남아시아의 가로건축(Street Architecture)의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유럽에서 쓰였던 문맥과 르네상스의 원본과는 확연히 다르다.

Block of terraced shophouses,
Georgetown, Penang, c. 1900.



Chiswick House.
Detail of 'Palladian motif'
on southwest facade.



표 4 영국 식민지 시대 말레이시아 Shophouse의 팔라디안 모티프(좌)
Chiswick House의 팔라디안 모티프(우). Photo: Chris Abel.

19) 로마의 개선문에서 기원한 르네상스시대의 창

20) 이 구성은 브라만테(Bramante)가 고안한 것으로 팔라디오가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후에 'Palladian motif'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인이 지은 ‘Shophouse’의 경우, 고전 양식과 모티프들이 유럽 건축으로부터 전유되지 않고, 유럽에서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동남아시아의 열대기후 조건과 식민지 말레이시아 도시무역의 특수성에 반응하기 위해 유럽 장식과 고전양식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건물

아벨의 세 번째 사례연구는, 식민지 행정기관이 디자인하고 시공하여 사무실로 쓰기 위한 공공기관 건물이다. 이 건물은 처음에 영국 건축가에 의해 고전양식으로 디자인된 건물이었는데, 그 이후 스리랑카에서 일한 적이 있고 인도의 사라센 건축을 존경했던 그의 상관에 의해 다시 디자인되었다.²¹⁾



그림 6 Former Selangor State Secretariat, Kuala Lumpur, 1894-97.
Architect: A. C. Norman. (이미지 출처: www.victorianweb.org)

21) Chris Able, Architecture and Identity, Architectural Press, 2000, p.157.

이슬람 건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건물 내부에 중정과 같이 둘러싸인 공간으로, 건물의 내부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²²⁾ 하지만 이 건물은 도시의 중심에 넓게 열려있는 중요한 공공 공간을 향해 위치하며 대응하는 매우 외부 지향적인 건물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이슬람 건축에 해당한다. 모튼은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이슬람 양식의 건축 자체에서 이미 도입된 새로운 건물 유형과 사회적 형태에 대한 요구들이 만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형태들 사이에서 더 이상의 교환이나 변화는 없었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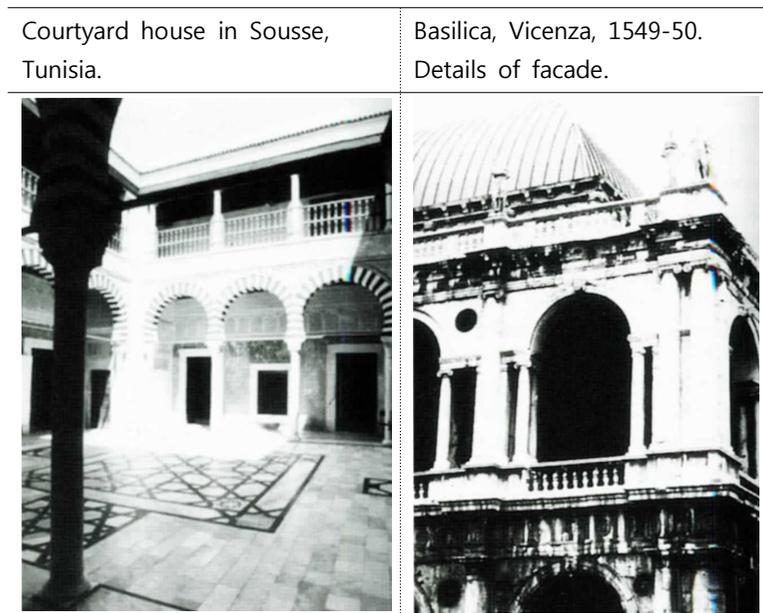


표 5 이슬람 양식의 건물 내부 중정(좌)과
바실리카의 입면 디테일(우)

팔라디오가 비첸자(Vicenza)에 설계한 2층짜리 로지아는 비첸자의 주요 광장에 건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광장의 외부적 요구에 대응하여 중요한 야외 공공 공간을 향하여 자리 잡고 있

22) Norberg-Schulz, C. 1980, *Genius Loci*. Rizzoli, P.23,
Chris Abel, *Architecture & Identity* 에서 재인용

으며, 세련된 디자인의 돈이 많이 드는 2층짜리 로지아는 주변의 상황에 대응하여 완벽하게 정당화된다.²³⁾

이슬람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르네상스 건축에 익숙한 영국 건축가는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혼합하여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의 정부 건물을 르네상스의 창조된 건축적 장치인 여러 층의 로지아를 이슬람 양식으로 디자인하였다. 이로 인해 로지아의 면이 건축 표현의 주요 표현 요소로 재등장하고 있는데, 이슬람과 르네상스 형태가 혼합되어 누구나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말레이시아의 역사적인 정부 건물이 생성된 것이다.

아벨은 이 사례를 말레이시아 식민 건축이 유럽 건물유형의 최소한의 개작으로, 그리고 고전 유럽건축과 이슬람 건축의 조합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하여, 아벨이 말하는 말레이시아 건축의 새로운 정체성은 영국 건축가들이 식민지에서 생산한 유럽 건축양식의 변형된 형태로서, 식민지 주체들과 그들의 건축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Abel's representation of malaysian architectural identity as a transformed version of European building types occludes any prior sign of history. This omission suggests a process of historical erasure: the removal of non-European peoples from their own pre-colonial past during their inscription into the *universal* linear history of the European.²⁴⁾

아벨은 영국 건축가들이 말레이 주택에서 선택해온 요소들을 유럽빌라 유형에 적용하여 변형된 방식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으며, 유럽

23) Chris Abel, Architecture & Identity, P.158

24) Felipe Hernandez, Bhabha for architects, p.81.

건물유형의 전용으로의 말레이시아 식민 건축, 그리고 유럽건축과 이슬람 건축의 조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당대의 말레이시아 건축 형성과정에 식민지 이전의 지역 건축전통이 담당한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에르난데스는 이 점을 비판한다. 말레이 토속 건축이 식민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변경된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²⁵⁾

여기에서, 바바의 혼성성을 단순히 양식, 재료, 건설기법의 혼합으로 서술하거나, 건축 정체성을 이와 같은 방식의 단순한 상징능력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3.2. 모튼: 박람회 건축과 정치적 영향

파트리샤 모튼(Patricia A. Moton)은 혼성성을 하나의 기호로서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튼은 1931년 파리 박람회에서 나타나는 식민지배 관계에서 인종들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라지는 현상, 그리고 식민주의에 의해 확립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규약의 해체로 혼성성을 구분한다.²⁶⁾ 모튼이 가장 주목하는 혼성화 기호는 일반 프랑스인에 의해 토착 모티프가 다른 곳에 사용되는 사례로, 박람회 차원이나 건물 차원에서 파빌리온 건물에서 나타나는 규모, 건축 양식의 병치, 건물의 내부와 외부 간의 모순을 넘어선다.

첫 번째 형태의 혼성성은 토착 파빌리온에서 볼 수 있다. 박람회의 모든 토착 파빌리온은 프랑스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다. 그들은 파빌리온의 외부 이미지는 식민화 이전의 상태를 재현하여 식민지의 전통 건축의 모습으로 디자인된 반면에 파빌리온의 내부에서는 진보와 프랑스 문명에 관한 교훈적 전시물을 전시했다.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며 완성된 토착 파빌리온은 두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가지는 물체, 형태, 재료 등의 물질적 공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25) 식민주의의 결과로서 말레이 주택이 변형되거나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26) Patricia A. Moton, *Hybrid Modernities*, pp.178-9

모든 하나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충돌적인 공존을 언급한다. 건물 외부와 내부의 상반되는 상황은 건물 차원에서의 혼성화의 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혼성화의 다른 경우는, 토착양식으로 지어져 토착민의 건축을 표상하는 파빌리온과, 아르데코의 미학 원리에 따라 디자인된 본국의 파빌리온의 구별에서 발견된다. 모든 식민화된 자와 식민지 지배자의 의도적으로 구분하게 함으로서, 식민화된 민족의 후진성과 프랑스의 발전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보았다.²⁷⁾ 이렇듯 토착 파빌리온과 본국 파빌리온의 구별에서 생성되는 긴장과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는 공존은, 박람회 차원에서 또 다른 형태의 혼성화를 나타낸다.



그림 7 정치적 영향에 의한 박람회 건축의 혼성화

27) Ibid, p.178

모튼이 가장 주목하는 혼성성은, 파리에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토착적 형태에 감명을 받아 본인의 건물에 덧붙이거나 차용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것이나 권위적인 것에 의해 발생하다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식민지의 형태 같은 것을 가져다 쓴 것이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식민 자체를 위협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혼성화는 본국과 식민지국 사이의 차이를 야기하므로 식민주의 표상의 이분법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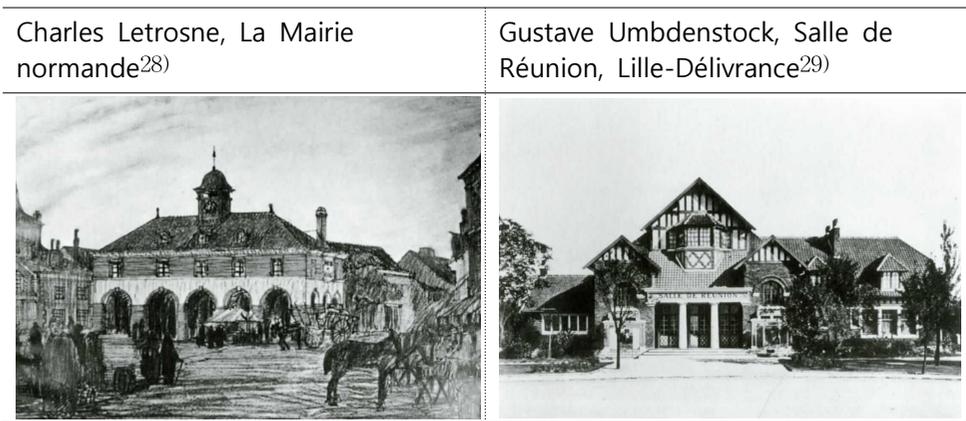


표 6 노르망디 시청(좌)와 회의소(우)의 스케치

그 당시 오리엔탈 모티프에 대해 유럽 사람들이 매혹되어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 중의 하나로 파리에 증식된, 무계획적인 절충 구조물이나 건물은 모방작으로만 인식되고, 박람회에도 출품하지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 건축가들이 보자르의 원리에 따라 디자인한 토착 파빌리온은 그들의 권위에 아무런 위협이 없었으며,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혼성성을 만들면서도 어떤 것은 부인하고 어떤 것은 용인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모튼은 이런 형태의 혼성성은, 식민주의

28) from Charles Letrosne, Murs et toits pour les pays de chez-nous, vol.1, 71

29) from Gustave Umbdenstock: oeuvres architecturales, 1897 1933, 54

에 내재된 역설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이 ‘혼성을 심지어 부인하면서도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으로 모튼이 언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혼성성은, 단지 형태들, 재료들이나 장식요소들의 혼합만 지칭하지 않고, 그러한 혼합의 사회정치적 효과 또한 나타낸다. 건축적 혼성성은 새로운 합성 건축의 형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의 한 증언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상황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2.3.3. 상황의 혼성성으로의 건축

위의 사례 연구에서 아벨은 말레이시아 건물들을 서술하면서 토착적 전통이 미친 영향을 배제하고, 유럽의 어떤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이 말레이시아의 토착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펠리페 에르난데스(Felipe Hernandez)는 아벨의 연구를 식민화된 문화를 그들 자신의 식민주의 이전의 과거로부터 근절하고, 유럽문화를 강화하는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방식의 건축적 혼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모튼은 그들의 본질이나 궁극적 실재의 참모습을 인식하기 어려운 관계를 박람회 건축의 사례 속에서 혼성성을 찾아내어 인정하려 시도하고, 식민역사에서 혼성건축에서 관찰되는 정치적 영향에 대한 해석으로 건축적 혼성성을 제안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호미 바바의 이론에 따르면, 혼성성을 양식 그 자체로써의 혼합이나 정치적 영향에 따른 식민역사의 혼성건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들의 창조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아벨과 모튼은 바바의 혼성성 이론을 너무 식민주의 상황에서만 보고 해석했다. 아벨은 양식의 혼합이라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만 주목하였고, 모튼은 외부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소 특수한 ‘박람회’라는 상황에 국한하여 본국과 식민지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영향과

혼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식민주의 상황에서 혼성성을 보더라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외부적 요인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시대에서도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혼성성에 대해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아벨이 분석한 사례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택과 공공기관 건물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양식의 혼합이라는 결론을 넘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혼성성을 찾아보려 한다.

① 영국 식민지 주택

먼저, 아벨이 첫 번째 사례인 영국 식민지 주택을 다시 살펴보면, 아벨의 연구에서 언급 했듯이, 말레이시아 전통 주거의 배치와 공간의 특징은 말레이시아의 날씨와 환경에 적합하도록 교차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단지 기후와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태가 나온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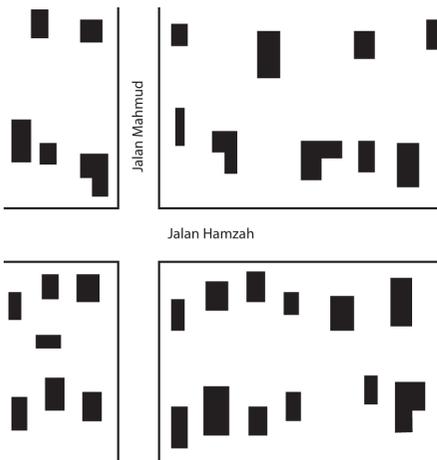


그림 8

말레이시아 전통마을의 배치 형태
(Kampung Bahru, Kuala Lump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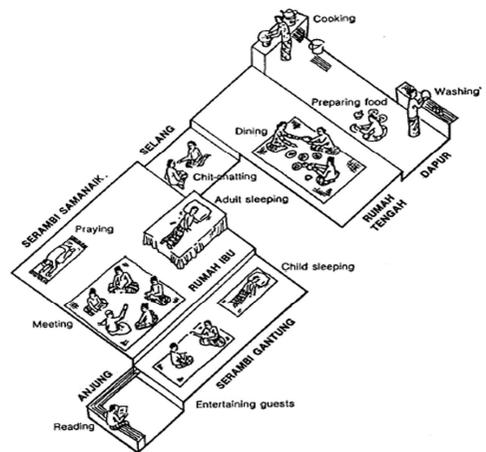


그림 9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의 내부공간 사용
이미지 출처: Lim Jee Yuan, 1987

그림 8의 배치형태와 같이 집들이 한 세대씩 독립적으로 떨어져 위치하는 것과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열려있는 주거 형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이 적용되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각기 분산되어 주택이 배치된 것은 여러 세대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대가족을 이루며 함께 사는 것이 아닌, 1세대 혹은 2세대 가족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인식과, 말레이시아 농경사회에서 집에 대한 개인의 강한 주인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촌락 안에서 각각의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지 않고 열려진 거주지 형태를 취하는 것은 과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성립된 토지공유 개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개념이 강하지 않고 공동체의 친밀성을 중요시 여겨, 주거 건축이 열대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의 이동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 이웃에게도 열려있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그림 9의 다이어그램은 일상의 행위들이 말레이시아 전통가옥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집의 내부 공간은 시간에 따라, 특별한 날이나,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가족 상황에 따라 다양도로 쓸 수 있게 최소한의 내부 구획이나 벽만 존재한다. 또한 최소한의 가구만 사용할 뿐, 대부분의 행위는 바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부 공간을 벽으로 구획하지 않고 가구를 거의 배치하지 않는 것은 공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내의 환기나 빛에 대한 고려도 있다.

이러한 주택의 각 영역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크게는 남성의 공적 공간인 현관과 베란다 부분과 사적 영역인 중심공간과 부엌으로 나누어 외부인의 출입과 가족 구성원의 사적 활동 영역이 정해진다.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환경에서 부엌과 중심공간에서 부엌으로 연결하는 복도는 철저히 여성의 사적공간으로 분류되며, 여성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주택 외부의 넓은 공간은 요리, 사교, 놀이, 노동의 공간으로 폭넓게 이용되며, 특히 강한 일광과 열대성 비를 피하여,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습기의 차단

과 통풍을 위해 한 층 정도 띄워진 주택의 아래공간을 이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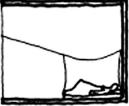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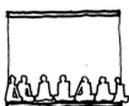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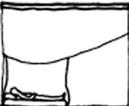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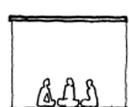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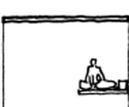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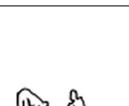
공간 명칭	활동(activity)				공간특성
현관 부분 (anjung)	 eating/entertainment	 sleep	 circulation	 cleaning	손님접대 및 사교 공간/ 가족구성원들 의 휴식 공간
베란다 (serambi)	 circulation	 eating/entertainment	 sleep	 work	남성손님 접대 공간
중심공간 (rumah ibu)	 circulation	 eating/entertainment	 sleep	 work	기도실, 침실, 가사일 등의 가족활동 공간
부엌	 cooking	 work	 entertainment		여성들의 사적 공간
띄워진 건물 아래공간	 circulation	 entertainment	 work		강한 햇빛이나 비를 피해 외부활동이 가능한 공간
외부공간	 circulation	 cooking	 eating/entertainment	 work	외부활동 및 가사일 등의 가족활동

표 7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영역별 활동내용 및 공간특성

이미지 출처: Wan Burhanuddin B. Wan Abidin, 1981.

지금까지 살펴 본 말레이시아 전통 주거의 특징을 바탕으로, 영국 식민지 주택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어지지 않았던 혼성성의 가치를 찾아보려 한다.

우선 아벨이 영국 식민지 주택과 유사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은 빌라 코르나로(Villa Cornaro)로 2층 구성으로 정면의 입면이 비례와 형태적으로 유사하지만, 평면을 보았을 때, 빌라 로툰다(Villa Rotunda)와 거의 같은 구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개의 빌라로부터 영국 식민지 주택의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교해 보고, 변화된 공간이 말레이시아 전통 주거의 특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현관으로 진입 하는 공간에 계단이 사라지고 사람과 차가 모두 드나들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유럽 빌라의 원형에서 정원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를 가지는데, 기존 말레이시아 전통주거에서의 현관 진입 공간이 수용했던 일상의 행위를 받아들이기 위해 현관 앞의 공간의 깊이가 깊어지는 변화를 보여준다. 바뀐 공간에서는 햇빛과 열대성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공적 성격으로 손님을 맞거나 간단한 놀이와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럽 건축의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면에서 띄우지 않고 지면층을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는 식민지 주택에서, 전통주거의 건물이 띄워진 공간 아래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활동역시 이렇게 변화된 현관 진입 공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일어났던 일부 행위들은 집 내부에서 수용하거나, 사라지기도 하였을 것이다.

한편, 식민지 주택의 2층 공간은 발코니였던 부분을 모두 내부공간화 하였는데, 말레이시아 전통 주거에서 벽을 만드는 방식을 모티프로 한 디테일을 만들어 발코니 부분에 적용하였다. 이는 단순히 양식의 혼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열대기후로 인해 지면의 열과 습기로부터 떨어져 2층에 생활공간을 만들어 거주했던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에, 1층을 띄워 2층만 내부 공간으로 사용했던

말레이시아 전통 주택이 1층을 내부공간으로 사용하는 유럽 빌라와 섞이면서, 1층의 내부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로 인하여 1층과 2층으로 집의 내부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게 되어,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양식이 생겨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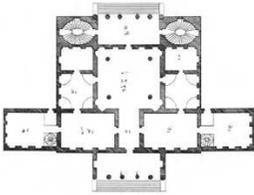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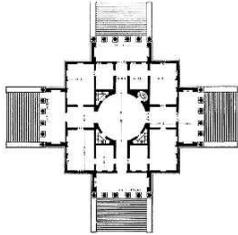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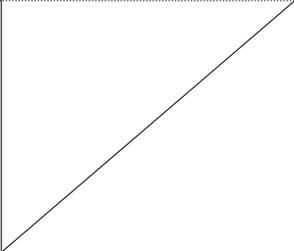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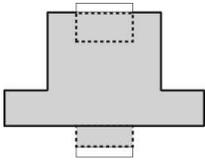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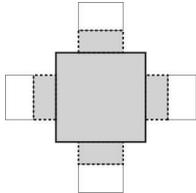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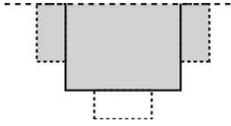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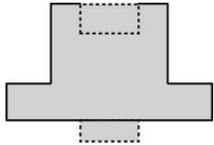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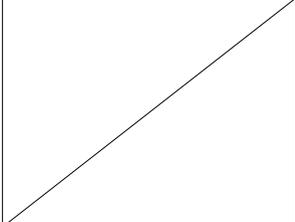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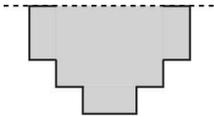
	Villa Cornaro, Piombino Dese, by Andrea Palladio.	Villa Rotunda, by Andrea Palladio, Vincenzo Scamozzi	Colonial Villa, Georgetown, Penang, c. 1990.	
정면				
평면				
1층 공간			 현관공간의 외부화	
2층 공간				 2층 전체 공간의 내부화

표 8 식민지 주택의 공간변형

② 공공건물

다른 사례 중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인지하고 이용하는 건물은 아벨의 세 번째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 중심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공공건물이다. 이 건물은 이슬람 건축의 형태가, 역사적으로 이슬람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건물의 유형과 사회적 형태로 사용되었다. 내부 지향적인 이슬람 건축의 특징과 반대되는 외부지향적인 건물에, 이슬람 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정부기관의 프로그램이 적용된 것이다. 즉, 이 사례는 이슬람 건축이나 고전건축의 전형적인 형태나 기능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고전형태와 이슬람 형태를 조합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어 말레이시아 식민 건축에서 정부기관 건물로 이용되었다.



그림 10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 1909.
(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장면)

143미터에 이르는 건물 길이로 인해 넓은 녹지의 반대편에서도 건물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훌륭한 광경을 제공하여 도시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 건물은, 비록 말레이시아 건축에 대한 고려 없

이 이슬람 건축의 형태와 르네상스 건축의 요소를 혼합하여 디자인 되었지만, 이 정부기관의 건물은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공공건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건물 외에도 넓은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고등법원을 비롯한 다른 정부기관의 건물이 같은 디자인 수법으로 건설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건물이 서로 마주하며 로지아로 구성된 입면이 잔디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어 광장의 연속으로 느끼게 하여 접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한다. 한편, 로지아의 또 다른 역할은 열대기후의 강한 햇빛과 비를 막아주어 내부 공간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며, 건물을 둘러서 형성되어있는 로지아는 사람들이 비와 더위를 피해 이동을 쉽게 해주거나 쉴 수 있게 해준다. 즉, 이슬람과 유럽의 다른 문화를 혼성하여 정부건물로써의 랜드마크 적인 캐릭터를 상황에 따라 만들어 내기도 하고,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의 동선, 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행위, 날씨에 따라 다른 상황을 적절히 수용하기도 한다.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건물외부를 둘러서 위치하는 아케이드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양식이 출현한 것이다.

바바의 혼성성 이론은 다른 지평의 융합으로써의 생성물 'C'를 고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성의 과정이 계속됨을 이야기한다. 이로 인해 차이의 증식이 이루어지며, 생성의 과정에서의 갈등과 긴장의 유지를 중시하여, 다르거나 상반되는 것과의 상호작용을 수용하고, 상상력과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혼성성은 결국, 차이의 상호작용으로 긴장과 갈등이 유지되는 개체의 융합 과정에서 차이의 상호작용이 차이의 융합, 차이의 공존, 차이의 드러남, 위계가 다른 차이 등의 다양한 성격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특징을 건축의 혼성에 적용하면, 형태나 코드가 아닌 다른 상황들이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축의 혼성성은 삶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렇게 다른 상황과 분위기를 넘나드는 것이 곧

일상의 삶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상황적 혼성성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주택과 공공건물을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의 측면에서 다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생활속의 삶이 혼성의 건축 속에 절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A와 B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속에 일상의 다양한 행위와 삶이 절충되어있다.

바바의 영향으로 연구했던 모튼과 아벨이 주장하는 양식적 측면, 정치적 측면도 혼성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한 부분이지만, 양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람들이 살아가는 습관과 행위, 문화적 패턴 등이 맞추어 변형되면서 새로운 혼성 건축이 가져오는 새로운 생활 양식도 만들어진다. 둘이 섞이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양식이 생겨나는 '삶의 방식의 혼성'이 상황적 혼성성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3장에서는 건축역사에서 상황의 혼성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상황의 혼성성이 작품에서 표현되는 건축가를 찾아본다.

제 3 장 혼성성의 건축가 알바 알토

근대 건축에서의 혼성적(hybrid) 경향은 절충적, 이중 교배의 복합적 스타일을 가지며 역사와 전통을 인용, 장식과 의장을 수용한다. 역사적으로 17세기 매너리즘, 19세기 절충주의, 20세기 초 아방가르드에서 혼성적 경향을 볼 수 있다. 현대건축의 혼성적 표현 양상은 근대 건축 표현과는 대립되는데, 현대사회의 다원적 분화가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건축에서는 일치성, 보편성, 중심성 보다는 이중성, 창조성, 불일치, 모순을 포함하고 이중적인 성질인 유추나 재현을 이용하게 되며 절충적 혹은 난해하게 분절된 추상적인 형태가 된다.

3.1. 건축역사에서의 상황적 혼성성

3.1.1. 근대 이전

□ 매너리즘

라파엘(Raphael)의 구상안으로 안토니오(Antonio da Sangallo)의 지휘아래 재건축된 Villa Madama는 1809년 Percier and Fontaine에 출판되었다. 그림 11의 출판된 자료의 도면에서는, 당시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던 엄격한 고전주의방식에 따라, 강조된 축 방향의 대칭과 더불어, 전체의 복잡함을 한 채의 통일된 건물로 정리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표 9의 실제 지어진 건물의 도면을 보면, 출판된 평면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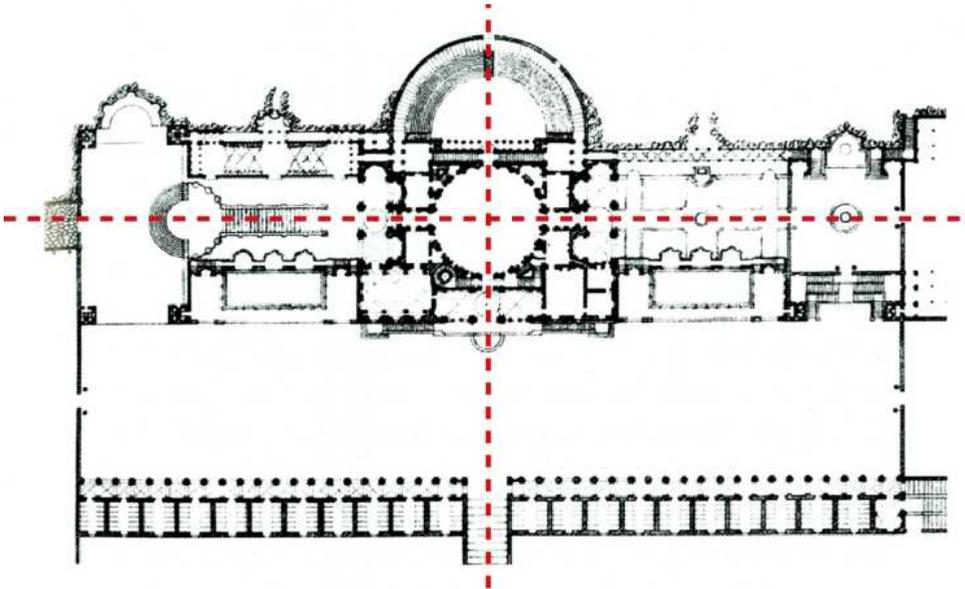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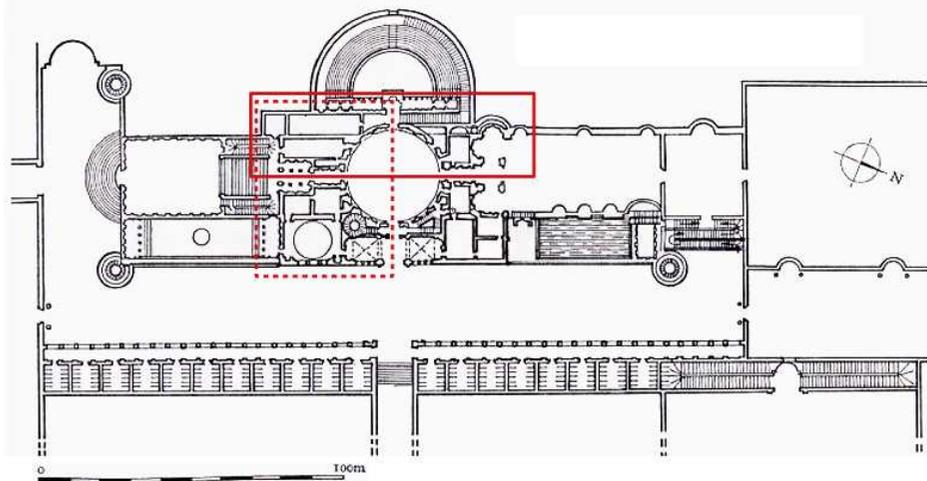


그림 11 Reconstruction of the Villa Madama by Percier and Fontaine, 1809.

(이미지 출처: Translation from drawing to building)

전체 평면 - 평면에서 공간적으로 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A 부분

B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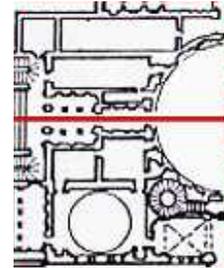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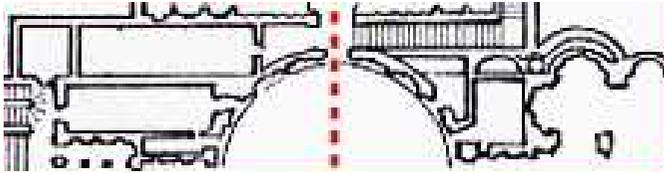


표 9 Raphael: Villa Madama, Rome, 1520. (redrawn by Uffizi, arch. 314)

출판된 도면을 보면, 각각의 방과 부분의 방의 구성들이 데칼코마니 처럼 건물의 반대편에 대응하여 위치하고 있다. 즉, 건물에서 공간의 전체적인 대칭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어진 건물의 평면에서는 빌라 내부의 대부분의 공간들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있지만, 복제된 공간 없이 모든 방은 달랐다. 균일성은 즉각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들에 제한되었으며, 건물 전체적으로는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Percier and Fontaine's rectified reconstruction, with its asymmetrical space inside a symmetrical envelope, illustrates the point at which the original Raphael ceased to make real sense; the point at which the latent structure of inhabited space burst through the confines of classical planning in his architecture. It had its parallel in his paintings, too: the point at which rationality shone through the vacuous signalling of gestures in his figures in his figure compositions. 30)

빌라 바다마의 평면을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간의 구성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빌라 바다마의 방들은 두 개에서 네 개의, 하나 이상의 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초부터 어떤 종류나 규모의 주거 건축에서 잘못된 것으로 여겨졌는데³¹⁾, 고대의 선례를 따르는 이탈리아의 이론가들은 완전히 반대의 의견으로 하나의 방에 문이 많은 것이 적은 것 보다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³²⁾ 이 두 가지 의견 사이에는 편리함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생각이 존재한다.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편리한 방은 많은 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19세기 영국에서 편리한 방은 단 하나의 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집 전체의 재배치가 필요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정의 생활패턴이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30) Robin Evans, *Translations from Drawing to Building*, Cambridge, Mass. : MIT Press, 1997, p.62

31) The gentlemen house, 1864. 로버트 커(Robert Kerr.)의 길과 같이 통과할 수 있는 방은 가정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32) 알베르티는 온갖 종류의 많은 문이 있는 건물을 보고 이러한 방식으로 문을 배치하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이 건물의 부분으로 이끌어 주어 편리하다고 말하며 추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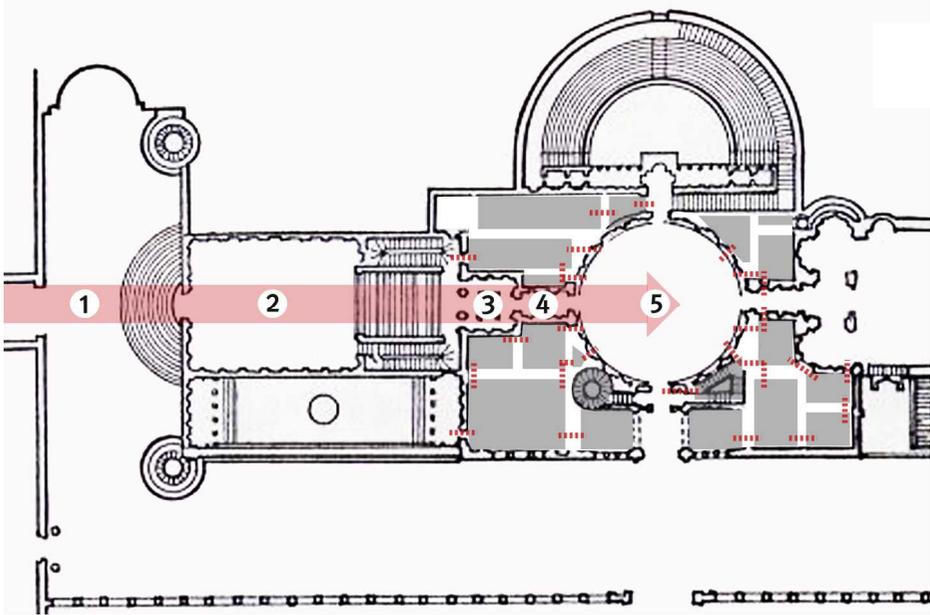


그림 12 상황의 혼성성을 수용하는 내부 공간

(Redrawn by Uffizi, arch. 314/ 연구자 편집)

남쪽 끝에 위치한 빌라 바다마의 정문을 통과하면, 반원형의 계단이 전정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계단을 오르면, 기둥이 나열된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고, 천장이 아치형인 복도를 지나 중심의 원형 중정에 도착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다섯 공간을 지나면, 구체적인 가족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친밀한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원형 마당부터 빌라로 들어가는 길은 우위가 정해지지 않은 서로 다른 길이 여러 개 있으며, 바로 정원이나 별관으로 가는 길도 여러 가지 이고, 로지아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나 전망대를 거쳐서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여러 개 존재한다.

일단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그 공간 옆에 위치한 방을 지나고, 또 그 다음 방을 지나는, 언제나 하나의 공간은 다른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라파엘의 평면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방식의 전형적인 예인데, 빌라 바다마의 평면에서는 문이 인접한 방과의 사이에 하나 이상이 자리 잡고 있어, 집이 완전히 상호 연결되는 방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로·세로로 공간을 나열해놓은 하나의 행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특징은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과 이용자에 따라 다양한 길과 공간을 선택하여 지나가게 한다. 남성, 여성, 어린이, 하인, 방문객 까지 집을 이용하는 사람 각각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동선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활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공간을 이동하거나 이용하면서 서로 마주치고 만나면서 예상치 않게 일어나는 이벤트를 수용하는 평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후 복도가 생성되어 복도와 방을 분리하게 된 계기가 계급별로 나누어 마주치지 않고, 각 공간에 독립적인 접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빗대어 보더라도, 빌라 바다마의 실제 평면은 차별을 두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삶의 상황의 혼성성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절충주의(Eclecticism)

혼성의 방식은 방법적으로 절충주의와 관련하고 있는데, 절충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 'ekletikos(선별한다)'에서 온 것이다. 절충주의란 용어를 소개한 18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빅토르 쿠쟁(Victor Cousin, 1792~ 1867)은 절충주의를 다양한 이질체계로부터 선택된 관점들로 구성된 사고의 복합체계라고 규정하면서 과거 혹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맹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현재에 적합한지를 합리적이고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³⁾ 따라서 절충주의에서 혼성은 이전의 문맥과는 무관하게 역사와 현재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단편화하여 입체파적인 콜라주를 그 방법으로 취하며, 적응·병치·대립·난해한 전체로 통합된다.

건축에서 19세기 역사주의의 양상인 절충주의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각 시대마다 고유의 상황 아래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역사 양식을 '평면'이라는 항목 아래 수많은 상품이 있어 필요할 때 그 중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것처럼 레퍼토리로 만든 다음 그

33) 이정욱, 혼성의 건축, 월간 건축문화사 9106, 1991, p160

대로 모방해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충주의를 ‘양식으로서의 양식’의 모방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성급하며, 그 속에 다양한 내용과 가능성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건축물들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에 근대국가의 기틀이 닦이면서 도서관, 기차역,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이 시민들을 위한 공공건물과,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은행, 대형 시장 등의 상업 시설이 새로 등장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 유형의 등장으로 이전에 없던 기능들이 그에 맞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찾아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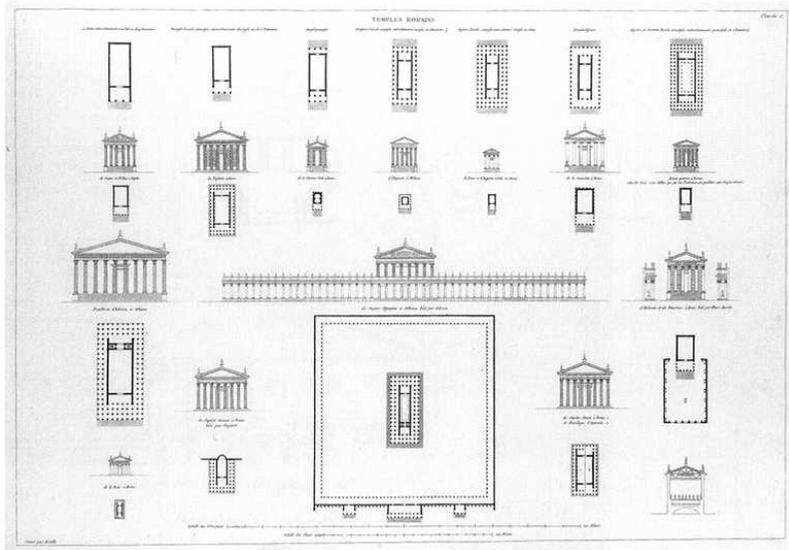


그림 13 Synopsis of Roman Temples, *Recueil et parallele des edifices de tout genre*, J.N.L. Durand (1760-1834)

절충주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공성이 강한 건물에는 고전주의, 고딕은 교육과 종교건축에 적합하며, 은행이나 상업건축에는 르네상스 적절하다.’는 생각으로, 역사적인 양식을 상징적인 가치나 특정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양식과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절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절충주의는 모티프

로써 양식을 선택하여 병치하거나 조합하여 하나의 건물로 만듦에 있어, 모든 건물은 그 속에 이야기와 도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절충주의의 다른 흐름은 양식의 합성으로의 절충이다. 이는 같은 건물의 반대편 입면을 각각 다른 양식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랩톤(Repton)과 같이 양식의 모자이크로써 절충된 건축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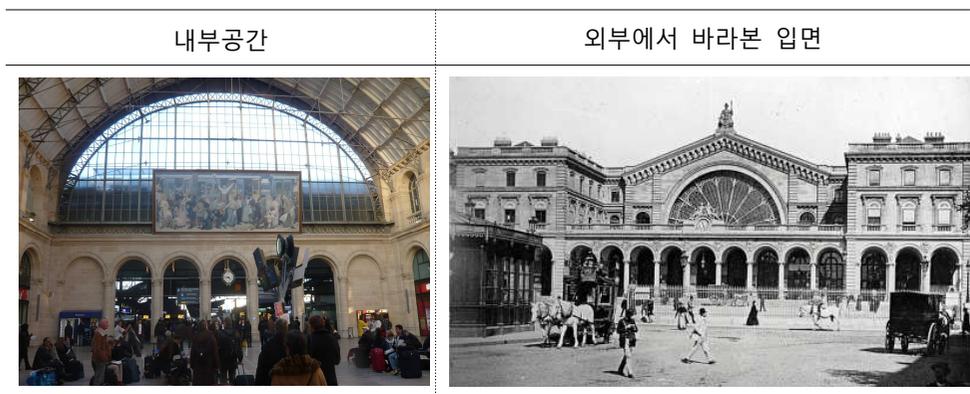


표 10 Gare de l'Est (1852), Paris, France, Francois-Alexander Duquesney
(이미지 출처: www.paris-architecture.info)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접목하여 설계한 절충적인 건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가장 초기의 기차역 중의 하나인 파리의 동역(Gare de l'Est)이다. 건축가인 프랑수아 뒤퀴에스니(Francois-Alexander Duquesney)에 의해 1852년 건설된 이후 많은 변화와 확장이 있었다.

건물 중심부의 박공은 거대한 철과 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큰 반원 형태의 창문이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는 스트라부르그(Strasbourg)의 상징적인 형태로 덮여있는데, 오스만의 스트라부르그 거리에서 중심점을 제공해 준다.

중앙의 박공 뒤로는 철로와 플랫폼을 완전히 덮고 있는 지붕이 이어지고, 지붕의 아치 리브는 트러스 구조로 되어있다. 이 중심 공간의 중앙 홀은 넓은 아케이드로 되어있어, 승객들이 한 쪽에서 반대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중심 공간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는

두 동의 네오르네상스 양식으로 앞으로 돌출되게 지은 건물이 있는데, 이는 출발과 도착 플랫폼의 축선을 알려준다.

절충주의는 다양한 선례를 선별적으로 절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초적 형상들의 조합이며, 문화의 코드(code)로서의 형상이다. 이는 알란 콜후(Alan Colquhoun)이 비판적 지역주의의 문제 중의 하나로 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상황의 혼성성은 개체의 융합에 의한 결과물로서의 형상으로, 이는 코드(code)로 읽히지 않는 형상이다. 또한 상황의 혼성성은 기본적으로 삶의 다차원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형상만의 문제가 아닌 분위기, 특징(character)의 문제이다.

위의 사례에서, 절충주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공간적 배열과 특징적인 구조 시스템의 혼합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건물에서 수용하여, 복합 프로그램 건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없었던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삶의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3.1.2. 근 . 현대

포스트모던 건축은 건축이 재료와 구조의 사용에서 진실해야 하며, 건축의 형태구성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근대 건축의 논리 대신에, 건축은 표현의 수단일 수 있으며, 지역적이며, 개인적인 창조의 측면을 강조한다. 건축 작업은 하나의 원리 체계가 아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축역사에 있어서의 다원주의의 대두라고 할 수 있으며, 건축의 형태 구성방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받아들이는 태도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을 띠며, 전개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모던 건축은 그들의 유구한 도시와 건축 역사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출발하였다. 건축의 창조는 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창작 행위는 과거의 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역사성을 도입했으며, 표피적이

고 장식적인 형태 대신에 원론적 이고 본질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의 대표적 경향은 맥락에 일치하는 유형들을 재해석하고 전통을 고수하고자 한 것이다.³⁴⁾ 이들은 건축과 도시를 의미 전달매체로서 인식하여 대칭성을 도입하고 고전적인 콜라주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특성과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짧은 건축역사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충적 양식이나, 미국적 지역성에 의존하여 건축형태를 시도하는 성향을 띤다.

근·현대 건축에서의 혼성이란 개념은 벤츄리(R. Venturi)의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에서 근대의 단순·추상적인 순수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대응하는 건축은 단순성보다는 복잡과 대립, 직설적인 것보다는 모호함과 긴장된 것, 양자택일보다는 양자공존을 취해야 한다는 사고를 통하여 복잡성과 대립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현대건축의 중심개념의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³⁵⁾

I like elements which are hybrid rather than 'pure,'
compromising rather than 'clean,' distorted rather than
'straightforward,' ambiguous rather than 'articulated,'
perverse as well as impersonal... ³⁶⁾

이렇듯 벤츄리는 순수한 형태 대신에 복합적인 형태를, 단순 명쾌한 형태 보다는 애매하고 모호한 형태를, 쉽고 단순한 형태의 조합보다는 여러 요소가 통합되는 매너리즘 건축을 추구하였다. 건축에 있어서의 장식과 상징성에 크게 몰두하면서 형태 구성의 수단으로서 과거의 양식 및 장식을 취합하여 콜라주적인 효과 등을 구사하였다. 벤츄리는 대립을 통한 양자공존의 사고와 난해한 전체라는 개념을 형태구성 방법으로서의 혼성성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4) 주로 알도 로시와 마리오 보타의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다.

35) 이정욱, 혼성의 건축, 월간 건축문화사 9106, 1991, p158

36) Robert Ventur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이렇듯 벤추리는 건축 형태의 복잡성과 대립성에 대해 이전까지의 건축 이론의 방향과는 다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미스의 “간결한 것이 더 풍부한 것(Less is more)”이 아니라, “적은 것은 풍부하지 않다(More is not less). 적은 것은 지루한 것이다(Less is a bore).”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도 있다.³⁷⁾ 우리에게 필요한 건축은 “통합과 간결성” 보다는 “풍부함과 불명료한 것”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매너리즘 시대와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건축을 대상으로 역사를 고찰하여, 엄격한 순수성 보다는 복잡과 대립의 요소들이 인간의 즐거움과 건축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복잡화·다각화 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서도 기능적 복잡성이 필요하며, 복잡과 대립의 요소들을 우리의 건축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차원의 의미와 시점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풍성함의 가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특히 건축에서 기능에 대한 부분이 더욱 복잡화 되어 온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매우 복잡한 프로그램을 가진 연구소, 병원, 도시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 뿐 아니라, 주택건축에서 그런 경험적 사상의 모호함이 표현된다면, 다양한 목적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벤추리는 달 착륙이 목표인 로켓과 건물을 비교하며, 건물의 프로그램이나 구조상 수단에 비해 그 목적은 아주 복잡하고 애매하기 까지 하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벤추리의 입장은 삶이 다양한 상황들의 연속 및 상호반응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차이를 내포한다는 혼성성의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벤추리는 모호성을 주제로 실제 이미지와 상상한 이미지를 병렬하는데서 생기는 복잡성과 대립성을 이야기 한다. 여러 문학, 예술분야의 예를 살펴보면, 예술의 원천이 되는 대립성은 ‘물리적 사실과 그 심리적 반응의 접촉’³⁸⁾으로 인한 결과로서 의미의 복잡성이나 그

37) Robert Ventur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p16-17

38) Joseph Albers,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에서 재인용

결과로서의 모호함, 긴장 등은 회화에 꼭 있어야 할 특질로 인식된다. 벤츄리는 건축에서 복합성과 대립성의 분류는 형태와 내용에 관한 것과 방법에 대한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 각각의 분류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복합성과 대립성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과 모호함, 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바가 말하는 혼성성에서 단지 새로운 종의 생성과 생성 결과물 자체만 주목한 것이 아닌, 가능성과 대립, 긴장 등을 중요시 하는 입장과 결을 같이 하며, 이를 복합성과 대립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호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3.1.3. 소결: 알바 알토에 주목하는 이유

벤츄리는 20세기 우수한 건축가들의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더 풍부한 복합성을 만들어 내려고 축조된 단순성을 거부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 대표적인 건축가로 알바알토, 르코르뷔지에³⁹⁾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 작품에서의 복합성과 대립성은 지나쳐 왔다고 평가하며, 르코르뷔지에와 알바 알토의 차이점도 명확히 이야기하는데, 이는 일찍이 포피리우스에 의해서 이야기 되어진 바 있다.

In an effort to particularize the universality of the grid, Le Corbusier introduced the singularity of the gesture which, however, could assume relevancy only in as much as it was related to the grid and which for that reason remained always its prisoner and temptation, the only way by which the Corbusian gesture could individualize itself was by traversing the finite fabric of variations, allusions, dependencies, contradictions, shifts, rotations, transgressions, or resemblances that were already dormant in the grid.⁴⁰⁾

39) 몇몇 작품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40) Demetri Porphyrios,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1982, p.1.

If the homotopic mind set out to establish the frontiers of an uninterrupted continuity, heterotopia was to destroy the continuity of syntax and to shatter the predictable modes of the homogeneous grid. In Aalto's ...⁴¹⁾

르코르뷔지에는 엄격하고 지배적인 질서를 설정하면서도 그 범위 안에서 예외적, 상황적 불일치를 인정하지만, 알토는 불일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질서를 형성하여 간다는 것이다. 포피리우스는 이에 덧붙여, 근대건축이 통일성(unity), 연속성(continuity), 공통적 법칙의 'Homo-topia'를 따른다면, 알토는 차이성(diffrence), 대립성(contradiction), 개별적 법칙의 'Heterotopia'의 질서를 따른다고 하였다. 알토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비정형적인 형태와 반듯한 정형적인 형태의 결합이나 유기적인 곡선의 과감한 쓰임, 다양한 재료의 이용 등의 특징이 이것이 차이와 대립을 통한 개별적 법칙으로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에 의한 것이다.

이 밖에 알바 알토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도 알바 알토의 건축은 같은 시기에 세계적으로 활동했던 대부분의 근대 건축가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서술된다. 다양한 재료, 구조, 프로그램들을 자연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완성된 알바 알토의 작품에 대해 주로 조형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알토는 단지 비정형의 공간과 다양한 재료로 콜라주적인 건축을 하는 건축가에 머무르지 않는다. 알토를 단순히 무언가를 혼성하여 건축을 완성했다고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멈춰 있지 않는 인간 삶의 상황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건축을 하였다.

41) Demetri Porphyrios, Sources of Modern Eclecticism, 1982, p.2.

Believing that 'great ideas arise from the small details of life',⁴²⁾ and 'the commonplace as a crucial architectural factor',⁴³⁾ Aalto always designed with the day-to-day needs of people in mind: unlike so much modern architecture whose icy, designerly perfection is soon violated, his buildings are enriched rather than diminished with use.⁴⁴⁾

People are at least as important to him as architecture. Aalto is interested in every human being, in each of their particular desires and experiences, no matter where they come from or to what social class they belong.⁴⁵⁾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 일상의 소소한 일들로부터 공간의 아이디어를 얻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사람 개개인에 대한 차별 없는 존중과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상과 고정되지 않는 시점으로 건축을 바라본 것이다.

알토는 "건축이나 그것의 디테일은 연어나 송어와 같다."⁴⁶⁾고 말했다. 서식처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곳의 강줄기에서 알로 태어나, 충분한 시간을 거쳐 성장하여 잘 적응하는 물고기가 되는 변화하는 성장의 과정을 가리킨 것이다. 건축을 하나의 정해진 질서나 규범 속에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일상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알토의 혼성적인 건축의 특징이 일상의 문맥 속에서 의식적으로 추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한 형태 속에는 다양한 삶의 상황이 담겨지기 힘들다. 순수한

42) Alvar Aalto, 'Culture and Technology', *Sketches*, pp.94-6

43) Schildt, *Early Years*, p.216.

44) Richard Weston, *Alvar Aalto*, 1995. p.227.

45)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1973, p.665

46) Alvar Aalto, 'The trout and the stream', 1947.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1985에서 재인용.

형태만을 추구하는 근대건축과는 달리, 알토는 차이를 허용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건축공간을 제시한다. 이는 일상의 삶의 행위를 수용하는 상황의 혼성성이 기본으로 하는 ‘차이의 상호작용’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알바 알토 건축의 상황적 혼성성을 살펴보기 전에, 알토에 대한 기존연구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이 보는 알토의 혼성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한계를 통해 상황적 혼성성의 차별화된 부분과 그 가능성을 찾아본다.

3.2. 혼성성에 대한 기존의 알바 알토 연구

3.2.1. 로버트 벤츄리가 본 알바알토

벤츄리는 그의 저서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에서 알바 알토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먼저, 로버트 벤츄리는 알바알토의 이마트라 근교의 보크세니스카 교회에 대해 ‘셋으로 나뉘는 평면과 음향을 배려한 천장으로 이루어진 참다운 복잡성이 반복됨으로써 이 교회는 정당한 표현주의의 본보기가 되었다.’⁴⁷⁾ 고 평한다. 알토의 복잡성은 건물 전체의 프로그램에 맞도록 형태와 구조를 고안한 것으로, 벤츄리는 이러한 알바 알토의 자유롭게 기능을 중시하는 방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벤츄리는 기능의 표현으로부터 이끌어 낸 비정형의 형태를 가진 알토의 건물에 흥미를 가지고, 그 관점에서 알바 알토를 바라보았다.



그림 14 보크세니스카 교회의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 내부 공간과(우), 그것이 반영된 외관(좌)

벤츄리는 기디온의 ‘표준화와 비합리성을 한통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표준화는 주역이 아닌 조역이 되고 말았다’는 알토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알토의 방법을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 대립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그는 알바 알토의 창조 행위에서 나타나는, 표준화라도 상

47) 로버트 벤츄리 (임창복 역),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p39-p40

황에 따라 질서를 변화시키거나, 문맥에 따라 관습을 적용하는 것 등이 표준화 대 융통성이라는 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알토는 상황과 문맥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비정형의 형태와 공간을 만들과 동시에, 도시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요구들을 수용하기 위한 직교좌표위의 정형적인 형태의 공간을 하나의 건물에서 같이 사용하였다. 벤츄리는 이를 알토가 표준화에 의한 질서의 불가피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알토 건축이 가지는 형태의 이중성을 복합성과 대립성의 건축으로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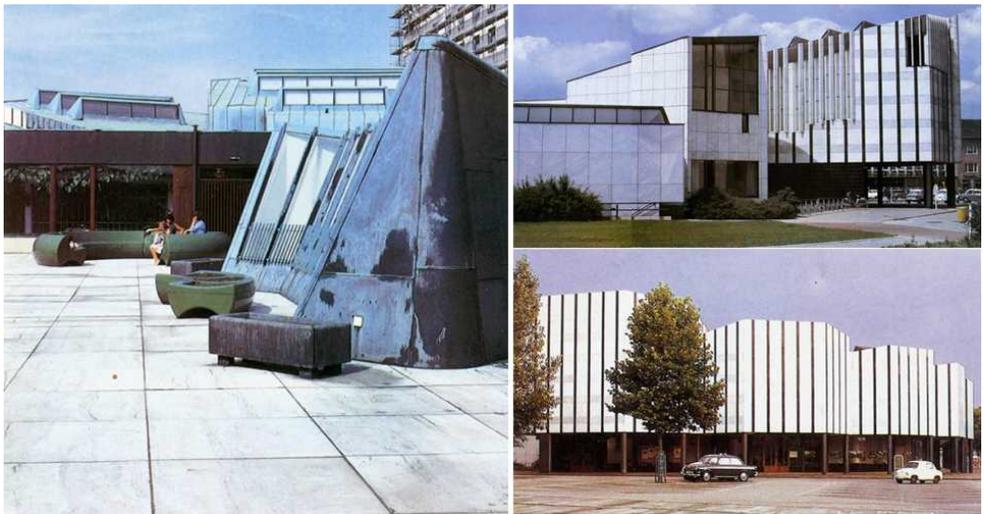


그림 15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중정부분(좌)과 외관(우)

한편, 벤츄리는 알토의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에 대해서 대등한 결합으로 전체의 통합을 시도한다고 평가한다. 이마트라 교회의 내부라던가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 실내의 통일성은 프로그램이 서로 맞지 않거나 우발적인 부분을 삭제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괄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보았다. 즉, 이 과정을 통해 알토의 건축은 각기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의 건물 안에 묶어내는 것이다.

알토가 설계한 브레멘의 아파트에서는, 르코르뷔지에의 아파트 단위

주호의 직사각형 설계에 기본을 두고, 일광과 조망을 위해 남쪽을 향해 사선을 쓰고, 또 다시 북쪽의 계단이나 통로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벤츄리는 이러한 특징의 브레멘의 아파트와 볼프스 부르크 문화센터의 평면을 보면서 표준적인 기술에서 나온 직교선과 예외적 상태를 표현하는 사선 사이에 균형이나 긴장이 유지된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하자면, 벤츄리의 관점에서는 알토가 질서를 조정해 상황에 따라 예외를 받아들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듯 벤츄리는 알토의 건축을 질서가 한눈에 쉽게 파악되지 않지만 질서와 상황에 대응한 예외와 같은 관계가 내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예외와 같은 요소가 비정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곧 다른 것과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복합적으로 조화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와의 관계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형성된 복합성과 대립성을 가진 건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 알토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에서의 요소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는 기능을 중시하는 알바 알토의 건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건물의 형태와 예외의 수용에 대한 언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알바 알토의 건축에서 왜 그런 형태가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후, 벤츄리가 복합성과 대립성의 재고를 통해 일종의 스타일이 아닌 기호로서의 건축이라는 특정한 하나의 방향을 규정하려 하는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는 건물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상황에 대한 관찰 보다는, 다소 추상적으로 질서를 조절하고 예외를 받아들여 건축을 완성하는 것으로 알토를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알토의 혼성적 건축형태의 형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2.2. 케네스 프램튼이 본 알바 알토

케네스 프램튼은 1983년 비판적 지역주의라는 개념을 두 편의 정리된 글로 발표함으로써 보편 문명과 지역문화의 대립구도라는 관점에서 건축이 당면한 위기와 극복방안으로서의 지역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가 제시한 해법들 중 축각적인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그 때 중요하게 다루는 예 중의 하나가 알바 알토의 세이나찰로 시청이다.

프램튼은 르네상스로부터 만들어진 시각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전통이 오늘날 형태적 재현에 치중하는 경향을 가져오게 했고, 이것은 건물을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각을 잃게 하면서 건축을 이미지, 즉 시각적인 차원으로 축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해 계단을 걷는다는 경험과 마감 재료에 대한 감각, 소리, 냄새, 무늬 등이 합쳐진 통합적 경험과 같은 축각적인 것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까움’에 대한 것을 회복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시각에 집중되어 근접성이 상실되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신체가 공간을 감각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축각적인 인지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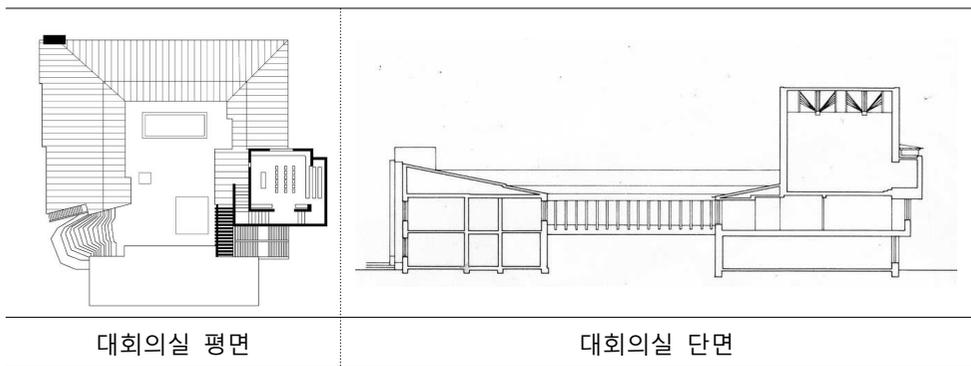


표 11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대회의실 평면과 단면

알바 알토의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2층에 위치한 대회의실로 통하는 주 출입구 부분은 계단과 건물의 외부 벽면도 벽돌로 처리되어 있다. 이러한 통행공간에 진입하여 벽돌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벽돌과

발자국의 마찰력은 통행공간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감각을 인지하게 한다. 하지만, 이동공간을 통과하여 원목으로 마감한 마룻바닥의 대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바닥의 촉감과 소리, 그리고 원목의 향기는 대조되는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벽돌로 만들어진 이동공간의 어두움과, 대회의실의 밝은 나무색의 대조가 회의실에 도착했다는 인식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프램튼은 이러한 대조로 인해 회의실이 지니고 있는 권위 있는 위상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후 그의 저서⁴⁸⁾에서 근대에 기술은 모든 것을 균질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로부터 현대의 기술이 가져야 하는 다른 측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때, 세이나찰로 시청사의 예가 다시 등장하는데, 회의실의 천장을 받치고 있는 나무로 된 트러스 구조를 추가로 언급한다. 바닥의 재료의 변화와 함께 구조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도착했다는 느낌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Thus the 'head' of Mrs Gullichen's prow-like studio opposes the 'tail' of the sauna, and wooden siding of public rooms stands in strong contrast to the white rendering of the private areas. Similarly complex formal operations abound throughout the house: an example is the 'metonymy' of the entrance canopy, the irregular rhythm of its timber screen echoing the irregular spacing of the pine trees in the forest.⁴⁹⁾

케네스 프램튼은 알토의 또 다른 작품인 빌라 마이레아(Villa Mairea)를 알토의 전쟁 전의 최고 걸작이라 평가하며, 인공적 형태와 자연적 형태 사이의 은유적인 대조를 암시하는 이중성의 원리가 작품

48) Kenneth Frampton, John Cava, *Studies in Tectonic Culture: The Poetics of Construction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 Edition 3, 2001.

49) 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1980, p.199.

전반에 걸쳐 보인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재료의 혼합과, 주 건물의 세련된 건축기술과는 반대로 사우나 건물이 핀란드의 토착 목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집안 내부 공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내부풍경으로 보고, 바닥이나 벽난로 등의 재료의 적용을 이해하고 있다.

Thus, the ultimate significance of Alto's work for the coming century resides in his conviction that the built work always has to be rendered , in large measure, as a landscape, thereby fusing and confusing both figure and ground, in a ceaseless interplay between natural constraint and cultural ingenuity.⁵⁰⁾

한편, 알바알토가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자연의 제한과 문화적 독창성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땅과 건물의 관계가 항상 알토의 건물에서 표현되었다고 평하며, 한정된 환경을 총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였다.

3.2.3. 기존 알바 알토 연구의 한계

알바 알토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로버트 벤츄리는 스케일의 혼성, 형태의 혼성의 관점에서 알토 건축을 보았고, 케네스 프램튼은 주로 시각 대신 촉각을 복원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알토의 건축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이는 분명히 알바 알토에 대한 긍정적이고 정확한 분석이며, 이후의 건축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두 사람 모두 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벤츄리는 스케일이나 형태에 다소 국한된 논의를 하였고, 프램튼은 재료와 구조, 땅과의 관계 등 좀 더 다양한 혼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50) Kenneth Frampton, The Legacy of Alvar Aalto: Evolution and Influence, , p.137.

하지만, 건축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혼성성이 아닌, 상황의 혼성성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삶의 다른 상황들의 공존하고, 그러한 공간들이 혼성적으로 형성되면서 차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혼성적으로 생성된 공간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케네스 프램튼은 공간의 느낌에 대한 논의하는 한 단계 높은 혼성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상황의 혼성성을 바탕으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공간의 상황, 공간의 캐릭터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건축 작업은 기본적으로 구조, 재료, 형태를 혼성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건축 안에서는 계절이나 온도에 따라 춥거나 따뜻한 상황, 여러 명이 모이거나 혼자 있는 상황, 특별한 목적이 있는 상황 등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이러한 상황을 혼성적으로 엮어서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의의 있는 건축가의 창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론가들이 재료, 구조, 형태의 기본적인 층위에 머물고, 촉각에 관한 이야기 또한 재료나 감각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딛고, 더 발전시켜 상황의 혼성성을 바탕으로 알토의 건축을 분석하여 새로운 알토 건축을 발견하고자 한다.

	혼성성 논의의 차원
로버트 벤추리 (Robert Venturi)	스케일/ 형태
케네스 프램튼 (Kenneth Frampton)	재료/ 구조/ 감각

표 12 알바알토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

3.3. 알바 알토 건축의 테마와 분석방법론

3.3.1. 알바 알토 건축의 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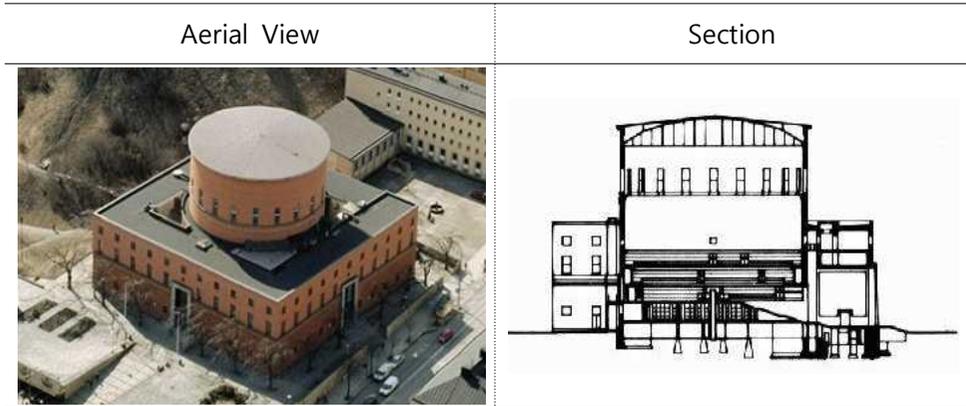


표 13 Gunnar Asplund, Public Library, Stockholm, 1920-1928

알바 알토의 초기 작품은 스웨덴의 신고전주의 작가인 아스플룬드(Erik Gunnar Asplund, 1885~1940) 영향을 많이 받아 대칭적인 정형성이 부각되는 것이 많다. 하지만 이후 조금씩 자신만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비정형적인 형태와 정형적인 형태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의 건물 디자인이 그것이다. 특히, 알토의 도서관 건물을 살펴보면 아스플룬드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한편으로는 비정형적인 형태와 정형적인 형태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스플룬드의 대표작인 헬싱키도서관에서 보이는 공간의 특징인, 좁은 복도로 들어서서 계단으로 올라서면 위아래로 크게 열리는, 판테온 같은 공간이 알토의 건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알바 알토의 도서관 건축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정형적인 형태의 공간에 오피스와 같은 행정, 서비스 기능을 위치시키고, 서고나 리딩룸의 중심 프로그램은 비정형적 형태의 공간에 자리한다. 이런 혼성적인 배치 형태(Configuration)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알토의 다른 건물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Saynatsalo Town Hall, 1949-52

한편, 알바 알토의 건축에서의 특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의 건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외부공간에 주목하게 되었다. 혼성적인 형태와 더불어, 알바 알토는 외부공간을 그의 건축에서 하나의 중요 모티프로 생각했다.

In parliament buildings and courthouses the court has preserved its inherited value from the time of ancient Crete, Greece and Rome to the Medieval and Renaissance periods.⁵¹⁾

In[Aalto's] view, providing the citizens of saynatsalo with a setting in which they could live like the fourteenth century inhabitants of Siena or San Gimignano was a patriotic act... Aalto envisaged the raised courtyard enclosed by the various buildings as a place for all citizens to assemble in the manner of Siena's Campo.⁵²⁾

51) Richard Weston, Alvar Aalto, 1995

52) Porphyrrios, 'Scandinavian Doricism', *Classicism is Not a Style*, op. cit., p. 23.

그가 세이나찰로 시청사(Saynatsalo Town Hall)에 중정을 중심 모티프로 삼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부터 중세와 르네상스에 이르기 까지 외부공간에 대한 나름의 원형을 찾으면서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공간(중정)은 나이와 계층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공 영역으로, 알바 알토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알바 알토의 대표작이자 비교적 초기작부터 거의 모든 작품에서 중정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꼭 건물 내부에 외부공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련의 건물 군들 사이의 광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성하거나 주변의 자연지형과 건물에 대응하는 면을 만들어 주어 건물 앞쪽에 외부공간을 만들려는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바알토 건축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혼성성에 연구와 더불어 외부공간(중정)이 혼성성(Hybridity)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3.3.2. 알바 알토 건축의 분석방법론

알토는 단순히 지역성과 모더니티, 자연과 건축, 정형과 비정형 형태 등을 섞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일상의 분위기나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섞이는 혼성적인 건축을 했다. 즉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변화, 사용자의 변화, 사람들의 삶의 변화 등 계속 변화하는 상황을 수용하는 건축을 알토의 건축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알바 알토 작품에서 나타나는 혼성성을 공간의 분위기나 캐릭터와 관련하여 상황적 혼성성의 관점에서 알토 건축을 분석하고자 한다.

알바 알토의 기존 연구는 단순히 형태, 재료, 구조 그 자체의 혼성, 혹은 혼성된 상태에 머물러, 상황의 혼성성을 드러내는 전략이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였다. 특히, 케네스 프램튼은 그의 저서⁵³⁾에서 텍토닉을 구조의 혼성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구조의 혼성이 갖는 공간의 분위기의 혼성 상황의 혼성으로는 잘 명확하게 끌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보통 건축가들이 이야기 하는 감각이나 지각을 풍요롭게 하는

53) Studies in Tectonic Culture

것은 이것은 미학적인 측면이다. 실제로는, 홀로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각각의 상황까지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형태 재료 구조 등의 혼성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구조 재료 형태의 혼성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의 혼성성을 구현하는 전략으로써 이것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 이론가들과 분석 틀이 유사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형태, 재료, 구조의 혼성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상황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알바알토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형태, 재료, 구조의 혼성성은 상황의 혼성성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단순히 예전 이론가들의 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형태·구조·재료의 혼성이 나타나는 가장 최고의 완성은 공간에서 담아내는 상황의 혼성성을 뒷받침 하는 전략으로 보고, 형태의 혼성성, 구조의 혼성성, 재료의 혼성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혼성성의 특징이 나타나는 알토 작품을 크게 교회, 도서관, 주거, 공공건축의 네 가지의 분류 아래의 대표적인 건물을 두 가지 선택하여, 각각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혼성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상황의 혼성성이 나타나는 양상과 공간의 특성을 연구한다. 그 결과, 상황적 혼성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차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지 공간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것이 어떠한 건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낸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벤츄리나 프램튼이 했던 분석에서는 끌어내지 못했던, 새로운 알토 건축의 혼성성, 상황성에 기초한 혼성성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분석대상	분석 틀	목적
교회건축	1. Church in Vuoksenniska, Imatra.	형태 · 구조 · 재료	'상황의 혼성성'을 드러내는 전략
	2. Church and Parish Community Center in Riola, Bologna, Italy.		
도서관건축	1. Municipal Library in Seinajoki		
	2. Library in Rovaniemi		
주거건축	1. Villa Mairea in Noormarkku		
	2. Architect's Summer House, Muuratsalo		
공공건축	1. Cultural Center in Wolfsbug		
	2. Town Hall in Marl		

표 15 분석대상과 분석 틀

제 4 장 상황의 혼성으로서의 알바 알토의 건축

건축에서 재료, 디테일, 이미지 등 많은 측면의 혼성성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의 4장에서는 상황적 혼성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온 형태적인 구성과 재료의 측면 등의 형식적인 분석에 더하여 상황적 혼성성의 관점을 적용한다. 그 결과 상황적 혼성성을 수용하는 공간적인 특질이 알바 알토의 건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특질을 정리해 본다.

4.1. 차이의 교환

4.1.1. Church in Vuoksenniska, Imatra, 1958.

공업지대인 이마트라에서 교회와 커뮤니티 센터와 같이 역할 하도록 디자인 된 교회이다. 이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진입 축과 제단의 축이 서로 엇갈려 90도 정도 돌려진 형태로 지어진 것이다. 기존의 교회건축에서 중요시 하는 진입에서 제단까지 이어지는 시선 연결 축이 직선상에 위치하지 않는, 독특한 비정형의 예배공간과 직교 형태의 기능적인 공간이 합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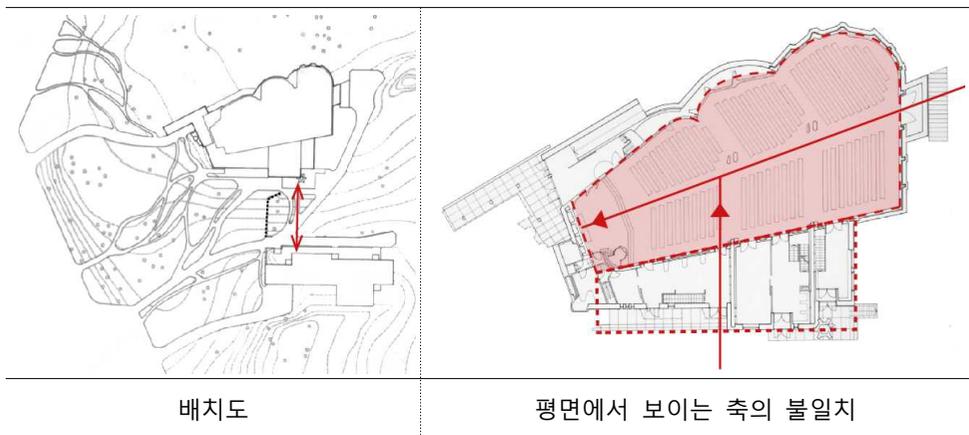


표 16 보크세니스카 교회의 배치도와 평면

진입 축과 제단 축이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설계를 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교회가 위치한 주변 맥락을 살펴보면, 교회의 뒤쪽에 위치한 숲에서는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 진입과 서비스 진입을 고려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장축 평면의 교회 공간의 축을 틀어서 위치시킨 것이다. 그리고 알토는 교회의 아래쪽에 위치한 목사관과의 연계를 원하였고, 두 건물의 관계에서 외부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진입 면을 수평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는 목사관에서 교회로 진입하는 길옆에 벽 같은 것을 만들어 한 면을 더 막아주어, 마치 두 건물 사

이의 둘러싸인 안마당을 지나다니는 느낌을 받도록 하였다.

교회 앞쪽에 위치한 목사관 건물의 면에 대응하여 지형의 등고선을 따라 주 진입 방향에 직선으로 면을 만들어 주면, 교회의 축을 돌리는 것의 이점으로 건물의 앞쪽 면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면서 주변과의 연계가 좋아지게 된다.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주 진입 공간의 직교 시스템의 형태는 오피스, 화장실, 계단실 등의 기능적인 공간이 위치하기에 적합하였다.

주 진입과 예배공간의 제단 축이 틀어진 결과, 제단의 축 선상 끝에는 상징적인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징적 의미로 남겨두고 사용하지 않으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커뮤니티의 행사 때 쓰이고 있다.

□ 형태

이마트라 교회 설계의 전체 과정에서, 틀어진 주 진입의 축과 예배공간의 제단의 축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는 알바알토에게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었을 것이다. 틀어진 축선 때문에, 주 출입구에서 진입한 사람들의 시선 방향의 전환이 아니고서는 자연스러운 시각적 연결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시선을 틀어진 축선의 끝에 위치한 제단 쪽으로 시각을 돌리는 과정에서, 주 진입으로 들어와 마주하는 예배공간 벽에 곡면을 도입하여 진입 축에서 제단으로의 시각적 연결에 기여하게 하였다. 곡선에 의한 방향전환이 하나의 시각적 프레임을 형성하여 제단으로 향하게 하는 시선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알바 알토는 처음 이 교회를 설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규모 공장지대인 이마트라에서 교회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을 반영하여 내부공간을 구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는 그의 초기 스케치 작업에서부터 형태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쪽 면의 원호 형태는 건물의 완성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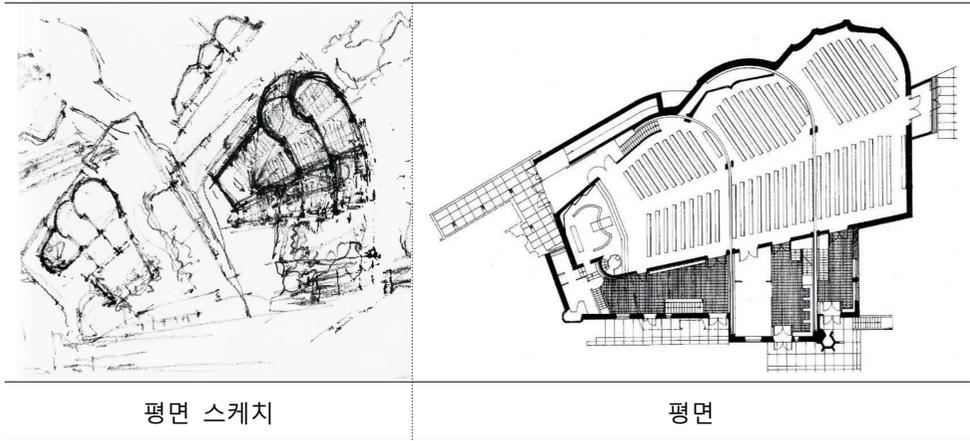


표 17 알바알토의 스케치와 평면의 원호 형태

예배공간의 한쪽 면에 위치한 세 개의 원호는, 다른 원호와 이어지는 부분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여 하나의 예배공간을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 공간은 소규모의 예배공간이나 지역 노동자들이 그룹별로 집회공간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쓰인다.

하지만, 틀어진 축으로 인해 주 진입에서의 시선전환을 위해 곡면을 반대쪽 면에 사용하여 제단과의 시선 연결을 도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입 축과 마주보는 가운데 부분만이 아닌,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원호로 예배공간을 만드는 것 대신, 세 개의 원호로 공간을 구성한 것은 분할되는 공간에 대한 고려 때문일 것이다. 알토는 단순히 정사각형의 공간을 나누어 칸막이를 치고 소규모로 모이는 공간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전체의 공간이 세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더라도 하나의 완전한, 완결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별 받거나 소외되지 않게 하려했던 것이다.

공간 단면 역시 세 부분으로 완결성 있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천정의 곡면은 음향에 대한 기능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나누어진 세 개의 공간이 완결성 있는 각각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게 해 준다.

□ 구조

보크세니스카 교회는 알토의 작품 중에서 이중벽 구조가 처음 나타난 작품이다. 이중벽 구조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전체 하나의 공간을 고려함과 동시에 나누어진 공간에도 적절한 빛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배공간에 자연광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그 각도와 위치를 조절하는 것과 동시에, 공간이 분리되었을 때에도 각 공간에 하나의 완전한 창이 위치하여 공간의 완전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3개로 분리된 공간	하나의 전체 공간
평면		
단면		
빛 (구조)		

표 18 보크세니스카 교회의 공간의 중첩

이렇듯, 이 건물은 원호로 이루어진 비정형적인 형태와 직사각형의 정형적 형태를 단순히 붙여서 완성한 건물이 아니다. 상황 속에 맞물려 들어가면서 출입구의 위치가 정해지고, 이렇게 정해진 진입 축과 교회 건축사에 있어서 긴 직선 축이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둘 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공존하고 있다. 두 가지 축의 공존은 주변 환경과 커뮤니티를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하나의 전체 공간으로 쓰이는 예배공간이 소수와 노동자들을 위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개별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분리해서 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슬라이딩 도어를 도입하여, 평면과 단면, 그리고 구조의 혼성을 이용하여 개별성과 전체성이 한 공간에서 교환되도록 한다. 차이의 교환에 의해 같은 공간이 전체성을 가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개별성을 가지는 것이다.

4.5.1. Church and Parish Community Center in Riola, Bologna, Italy



표 19 Church and Parish Community Center in Riola, Bologna, Italy, 1966

□ 형태

이 건물은 교회와 커뮤니티 센터가 같이 역할 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이 건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예배공간이 외부공간 쪽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접이문을 예배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에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 외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교회건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율에 바탕을 둔 자율적 (autonomous)이고 자기참조적(self-referential)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교회 밖은 세속적 공간으로, 교회 안의 공간은 신성하고 완전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교회 앞의 외부공간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도 하고 사교활동도 하는 공간으로, 친교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배라는 것이 꼭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가능하므로 외부공간(중정)은 교회를 구성하는 공간들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공간과는 달리, 교회 앞의 외부공간을 교회 안의 외부공간으로 끌어들이어 수용하면서 주변의 커뮤니티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소에는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다가, 접이문을 열면 실내였던 예배공간과 실외의 외부공간이 연결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교회의 안마당은 종교행사와 더불어 마을 사람들의 결혼식, 장례식 등의 다양한 용도로 커뮤니티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외부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4.5.2. 커뮤니티와 외부공간

위 사례는 교회와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통 교회건축에서 이야기 하는 세속과 분리된 성스러운 영역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대부분 외부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알토의 의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의 아고라(Agora)에서부터 중세 이탈리아의 광장인 캄포 시에나(Campo Siena)까지 이어 내려온 모임의 공간을 모티브로 하여 이어온 외부공간을 만들어 삶의 다양성과 주변의 커뮤니티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외부공간의 조성과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은 연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제안은 알토의 민주성에 대한 견해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계층, 직업,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건물을 이용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듯, 삶의 차원을 받아들이고, 주변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상황의 혼성성이며, 위의 사례에서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차이의 연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4.2. 차이의 공존

4.2.1. Municipal Library in Seinajo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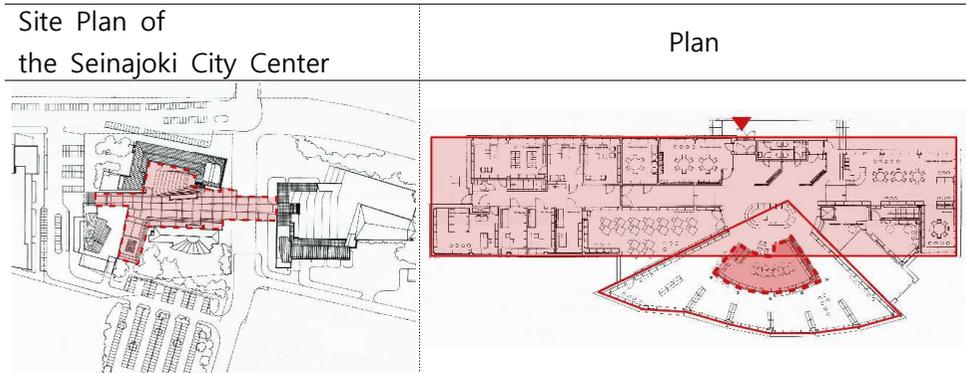


표 20 Municipal Library in Seinajoki, 1963-65

□ 형태

세이나요키 도서관은 타운 홀 앞에 펼쳐진 광장의 남쪽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내부공간의 사용 방법의 차이가 평면의 형태와 입면의 벽에 의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알바 알토의 ‘Seinajoki City center’ 계획을 보면, 주변에 위치하는 다른 건물들과 같이 중간 공간을 에워싸며 외부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도서관의 진입 면이 직선으로 이루어져 외부공간을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형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사각형의 형태의 공간에는 도서관의 기능적인 프로그램들이 배치되었고, 이 정형적 형태의 공간을 통과하여 만나게 되는 비정형적 형태의 공간에 서고와 열람실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은 형태의 도서관은 원형의 대출데스크를 중심으로 하여 모아진다. 서고와 열람공간이 위치한 조금씩 다른 부채꼴 모양의 평면이 중심성을 가지고 최대한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점점 평면이 넓어지는 부채꼴 형태를 가진다. 가운데 부분은 선큰은, 사람의 신체를 기준으로 서서 닿을 수 있는 서고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

계가 오면 계단을 올라 층이 바뀌는 특징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에도 서고와 열람공간이 함께 위치하여 큰 하나의 도서관 공간 안에서 개별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선근과 부채꼴 모양의 평면에 맞추어 배치된 서고는 책을 보관 할 수 있는 의 면적을 넓혀줌과 동시에 개별성을 살리는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4.1.2. Library in Rovaniemi, 196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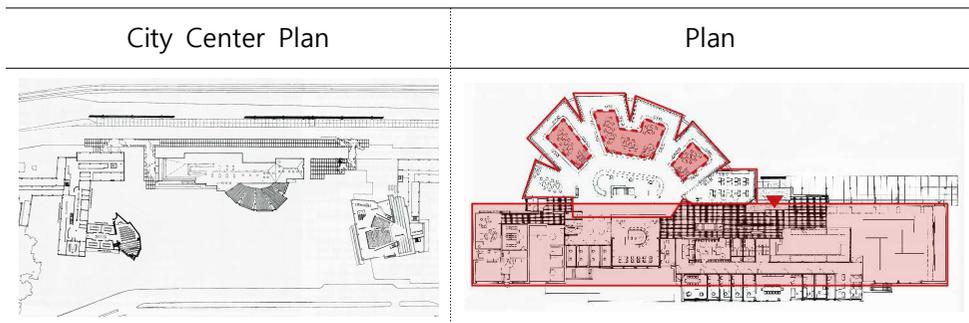


표 21 Library in Rovaniemi, 1965-68

□ 형태

로바니에미 도서관은 세이나요키 도서관과 기본 형태는 유사하지만, 건물의 진입방향과 공간의 경험이 다르다. 세이나요키 도서관 보다 한층 더 개별성을 살리는 심화된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동쪽에서 도서관 외부 벽의 열주를 따라 진입하면서 비정형 형태가 보이고, 직사각형 형태의 로비 공간에 진입하면 미리 암시된 비정형 형태의 공간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찾아가게 된다.

이 도서관의 비정형의 부채꼴 평면은 열람실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형성된 선근 공간에 어린이, 청년, 성인을 위한 열람실이 위치해 있다. 내부의 채광을 위한 고측창은 서로 다른 부채꼴이 만나는 지점에 삼각형 형태의 공간을 파내어, 좀 더 다양한 방향에서 충분한 빛을 받

아들이기 위한 창을 추가로 더 설치하였다. 이런 디자인은 도서관 평면에서 서고를 벽을 둘러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고, 공간을 분리시켜 개별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4.1.3. 공간의 수직적·수평적 확장

알바 알토가 도서관에서 열람실이나 서고 공간을 왜 이런 형태로 쓰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운데에서 끝으로 갈수록 공간이 점점 확장되는 부채꼴 형태를 가지게 되면 서고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또한, 선 큰 공간을 만들어 서고의 가용 면적을 다시 한 번 늘렸다. 즉, 두 가지 요소를 디자인에 도입하여 도서관 공간의 수평적 확장을 이룬 것이다.

썬큰공간은 아스플룬드의 스톡홀름 공공 도서관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인 건물의 한 층의 층고가 아니라, 서고의 가장 윗간에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까지를 하나의 층으로 기준삼아 한단 올라가고 내려가게 설계 되었다. 이는 썬큰 공간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도서관 건축에서 층이 두 개로 나타나게 되어, 도서관의 중심공간을 전체의 큰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하면서도 썬큰공간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성격을 가지는, 공간의 수직적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썬큰공간은 열람공간을 분리시켜주어 부채꼴 형태의 서고부분으로 인한 공간의 분리와 함께 각각 공간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별성을 가지는 선 큰 공간과, 선 큰 공간을 포함하여 전체의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채꼴 형태의 열람공간이 한 공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성과 전체성의 상반된 성격의 차이의 공간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3. 차이의 병치

4.3.1. Architect's Summer House, Muuratsalo, 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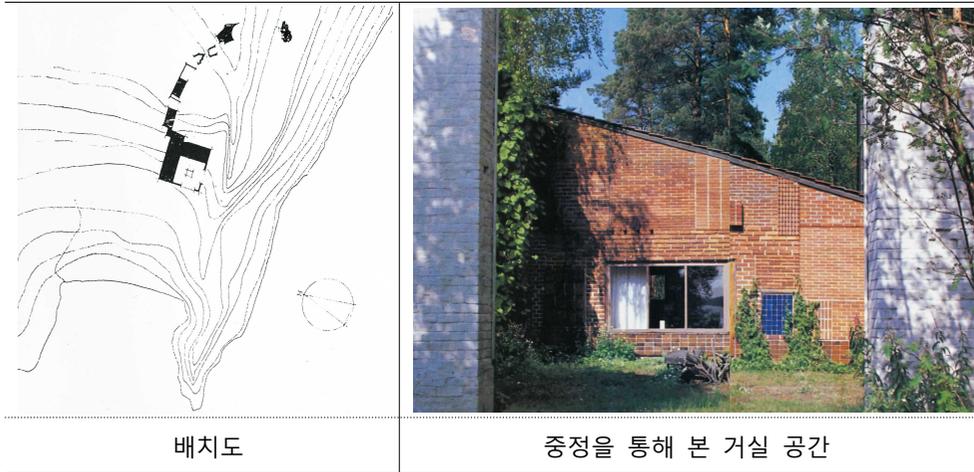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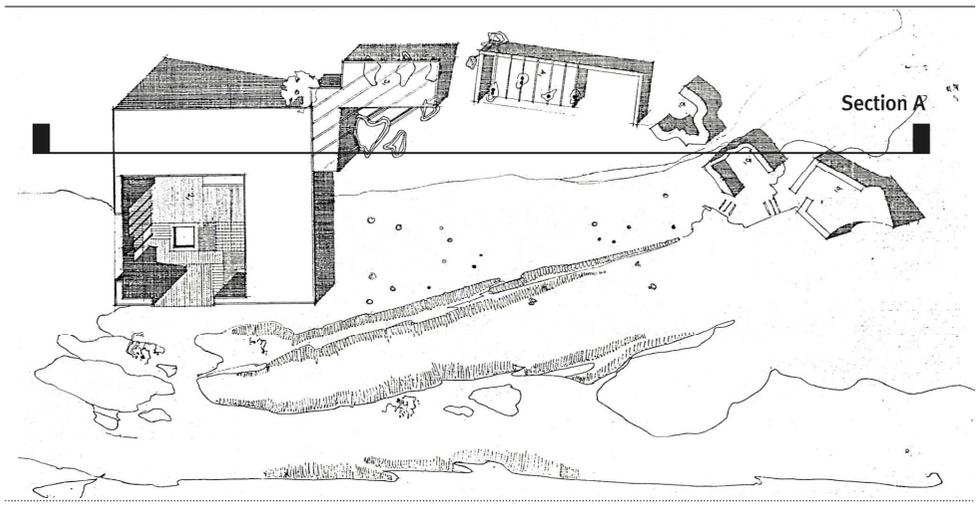
표 22 무라찰로 여름별장 배치도와 사진

□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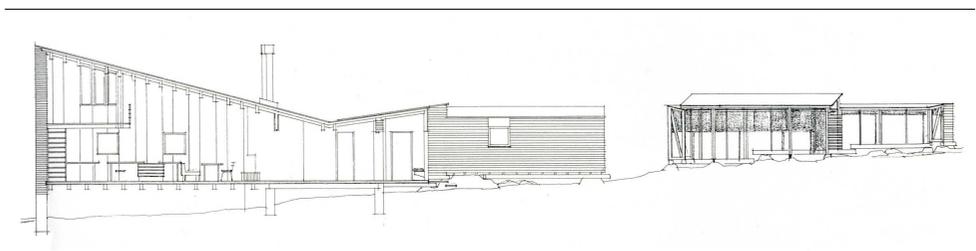
이 별장은 무라찰로라는 섬의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데, 알토의 가족과 아틀리에의 직원들이 생활하고 일을 하기도 하는 목적으로 지어졌다. 건물은 주거와 작업실을 L형으로 연결하고, 각각의 벽돌벽을 연장시켜 높은 담을 만들었다. 정사각형으로 둘러싼 안뜰의 중앙에는 난로를 만들고 벽돌을 깔았다. 벽돌담은 바람막이인데 일부분을 나무 격자로 터서, 이 곳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고 호수의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즉, 이 공간은 건물과 벽으로 둘러싸인 중정이기도 하면서, 테라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대지의 완만한 경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 내부 공간의 상황에 충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업장의 동쪽 끝에서 시작한 지붕은 게스트 룸에서 높이가 변하고, 본채에서는 침실에서 테라스로 내려가고, 반대로 거실의 경사 지붕이 올라간다. 이렇

듯 공간의 높낮이에도 삶의 상황을 받아들여 각기 다른 성격의 공간들이 복합체를 형성하면서 일상생활에 대응한다.



지붕 평면



단면 A

표 23 무라찰로 여름별장 지붕 평면과 단면A

‘실험주택’이라고도 불리는 무라찰로 주택은, 알토와 아틀리에의 직원들이 구조, 재료, 태양열에 의한 난방, 기초가 없는 건물의 실험을 건물에서 행하였다. 벽돌의 무늬, 각 공간에 적용된 구조 등은 삶의 행위를 담는다는 측면보다는 내구성, 구축방법 등의 실험의 결과를 위한 것이므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시선과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상황의 혼성성이 드러나는 양상을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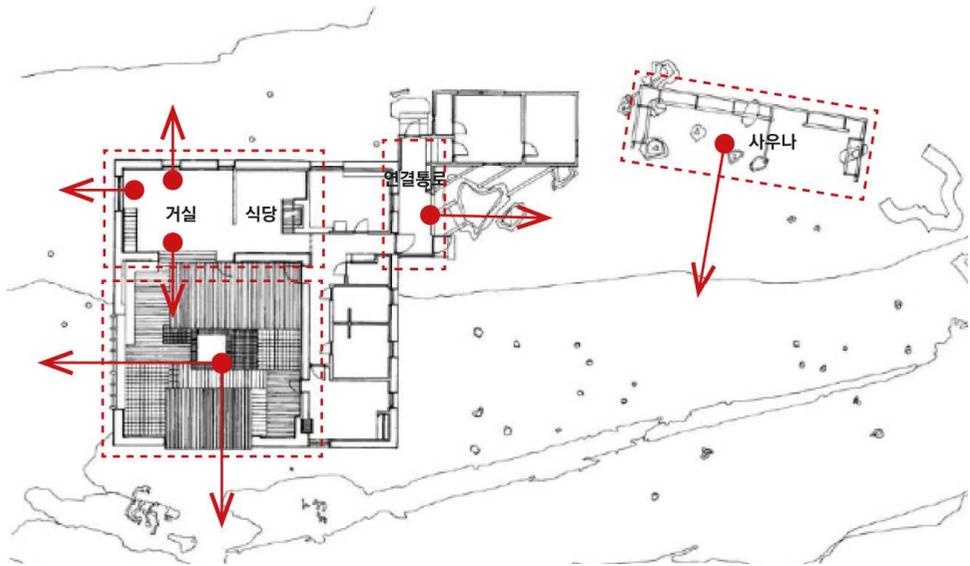


그림 16 형태에 따른 외부와의 관계

□ 형태에 따른 외부와의 관계

이 주택에서 3개의 건물에 서로 다른 기능을 독립시켜 주위 환경 속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게 하였다. 알토가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건물로 하지 않은 것은 각각의 공간의 성격에 맞게 자연과 다차원성을 가지고 있는 일상에 대응하려한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3개로 나뉜 건물과 벽돌벽을 연장시켜 안뜰을 만들어 테라스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특히 시선을 통해 각 공간의 외부와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었다. 특히, 건물에 붙여 테라스를 설치하고 벽을 둘러 세움으로써, 외부 공간, 테라스 공간, 내부 공간의 다양성을 부가하여 자연 속에서 다른 성격의 공간이 공존하게 하였다.

시선의 차단과 열림 또한 이 주택의 특징 중 하나이다. 먼저, 벽을 둘러 세운 중정에 의해 다른 방향으로의 시선이 차단되고, 정 사각형의 형태로 건물을 설계하여, 남쪽과 서쪽의 벽이 열려진 부분으로의 시선만 허용된다. 서쪽은 격자무늬로 막아놓아, 중정의 입면으로 한 번 더 공간의 영역을 나누어 주는데, 이로 인해 중정의 입면까지 시선의 범위를 추가하여 공간과 시선 다양성을 늘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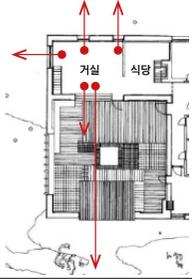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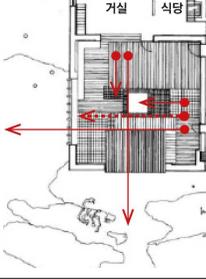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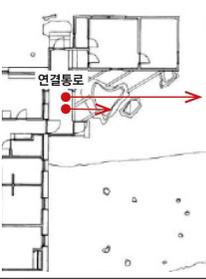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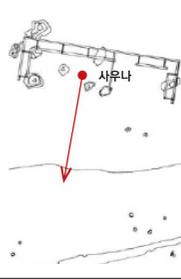
	거실과 식당	중정(테라스)	이동통로/휴게공간	사우나
시선				
시선의 방향	서, 북 - 숲 남 - 바다	서 - 숲 남 - 바다	동 - 숲	남서 - 바다
시선의 영역	내부 - 중정 내부 - 외부	중정 내부 중정 - 파사드(서) 중정 - 외부	내부 - 작은 중정 내부 - 외부	내부-외부
외부 대응방식	중정을 통해 대응/ 직접 대응	파사드를 통한 대응/ 직접대응	작은 중정을 통한 대응/ 직접대응	직접대응

표 24 무라찰로 주택의 공용공간 성격 분석

기본적으로 창의 크기가 작고 창의 수도 적은 주택으로,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 공간마다 시선의 방향과, 시선의 영역이 다르다. 거실과 식당에서의 서쪽 방향의 시선과, 중정에서의 서쪽을 향한 시선은 중정의 파사드에 의해 달라지며, 독립적으로 떨어져 위치해 있는 사우나에서의 시선 역시 집 안에서의 시선이나, 중정에서의 시선과는 차별화 할 수 있다.

무라찰로 주택은 평면과 높이의 상호관계. 공간의 스케일, 그리고 별장과 주변의 환경, 구조, 재료, 용도 등 여러 가지를 각각의 공간이 요구하는 성격에 맞게 구성하여 삶의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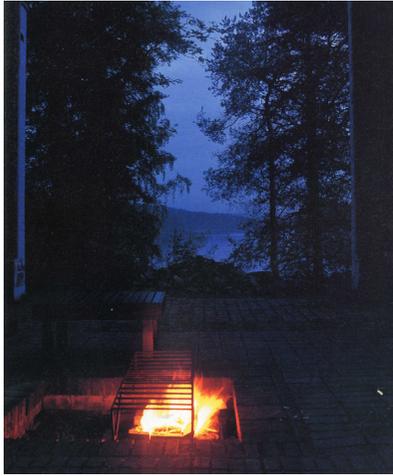


그림 17 중정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모습

세 동으로 나뉜 개개 건물과, 내부 공간이 외부와 대응하는 방식, 시선의 방향과 영역의 조절에 따라, 각각 다른 성격의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으로 공간들이 병치되어 각각의 차이와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3.2. Villa Mairea in Noormarkku



배치도

서쪽에서 본 모습

표 25 마이에라 주택의 배치도와 외부 사진

□ 형태

알토는 소나무 숲의 조금 높은 언덕에 Villa Mairea를 위치시키고, 진입도로를 등지고 ‘ㄷ’자 모양으로 외부공간을 둘러싼 배치를 하였다.

1층은 거실과 갤러리를 중심으로, 현관, 주방, 서비스 공간이 배치되어 L형 플랜으로 되어있다. 2층에는 방, 테라스, 옥상정원이 있다. L형 플랜은 거실의 맞은편에 사우나와 수영장(pool)을 만듦으로써 ‘ㄷ’자 형으로 둘러싼 안뜰을 만들고, 나머지 한 쪽 측면을 수목으로 막아서 안뜰을 둘러싸게 했다.

주택의 외관은 흰색으로 마무리 한 부분과, 나무와 돌 등의 다양한 재질을 가진 부분들로 둘러싸이거나 접하고 있으며, 같은 나무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색과 구성방법이 다르다. 형태적으로는, 모서리 부분의 커브형태의 벽과 직각으로 만나는 벽이 함께 존재하여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외관상으로 보아도 이 주택은 다른 크기와 형태를 가지는 공간이 모여 혼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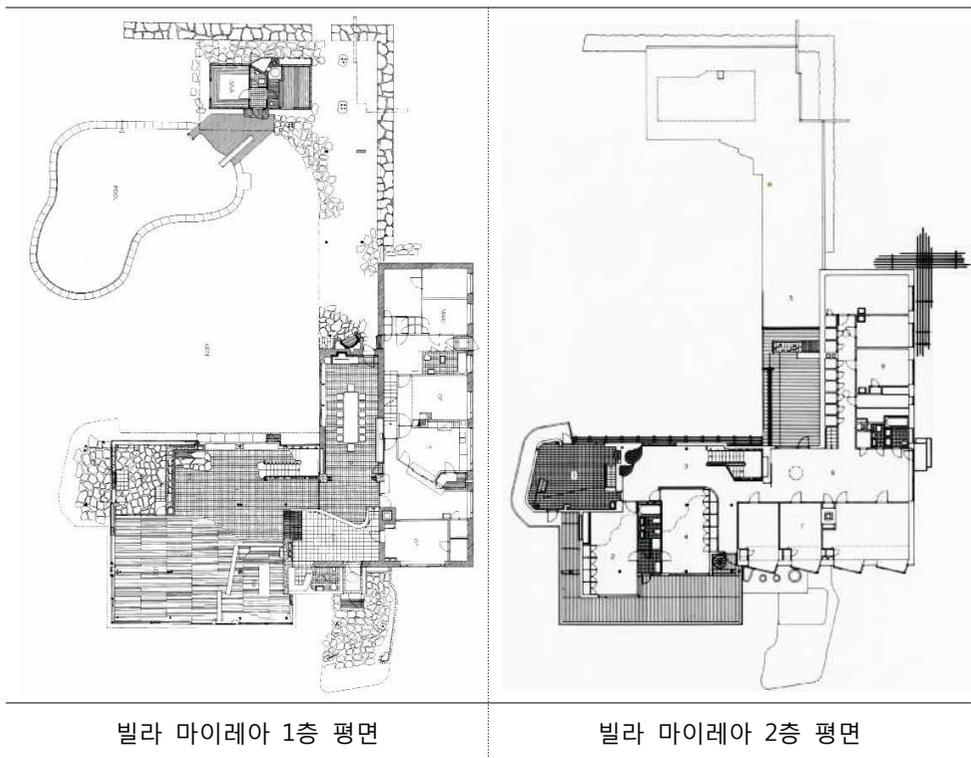


표 26 마이레아 주택의 평면

주택의 내부를 살펴보면, 공간마다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각각의 주거 공간에 적절한 공간감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1층의 거실공간은 둘로 나누어져 각각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이에 주목하여 분석해 본다.

□ 재료

외부에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비정형의 자연 판석으로 바닥을 마감하였고, 현관에 들어서면 갈색을 띠는 큰 네모 타일이 깔려있다. 이어지는 나무로 마감된 계단을 오르면 거실에 접근하게 되는데, 거실1에는 현관보다 작은 크기의 붉은색의 타일을 사용하였고, 거실1에서 직각으로 꺾여 이어지는 식당에도 같은 타일이 사용되었다. 거실2에는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거실1과 거실2가 만나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바닥 재료가 만나 현관에 들어서면서 마주쳤던 눈높이의 벽과 같은 파동형 곡선을 만들고 있다.

□ 구조

알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조체계로 통일하지 않고, 공간에 따라, 벽과 기둥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특히 그리드 위에 일률적으로 기둥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기둥을 감고 있는 얇은 띠의 높이가 다른 기둥들을 무작위로 두 개나 세 개씩 모아 자유롭게 배치하였다.

거실1과 거실2는 구조도 차별화를 두었는데, 거실1은 벽난로가 있는 공간을 'ㄱ'자로 둘러 두꺼운 벽으로 이루어져 닫힌 성향의 구조를 사용하였고, 벽난로 옆에서부터 계단까지는 창문을 설치하여 집안의 외부 공간과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거실2는 열린 구조로 되어있어 큰 창이 공간을 둘러 위치하고 있고, 더 얇은 기둥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 공간

거실 1에서의 중심 시선은 벽난로 바로 옆의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는 것으로 집의 앞부분을 향해있다. 먼저, 현관에 이르기까지의 길과, 현관 위에 가로로 길게 난 창을 통해 그 너머의 소나무 숲의 일부를 볼 수 있다. 또한,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거실2의 전체 거실공간을 볼 수 있다. 벽난로의 반대쪽 옆에 앉더라도 왼쪽의 창문을 통해 L모양으로 꺾어진 식당의 벽이 시야에 들어올 뿐, 거실1에서의 시선은 대부분의 집안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집 밖의 자연이 아니라, 집 안의 인공적인 사물들을 보게 된다.

거실2에서의 시각은 거실 1과는 반대 방향으로의 전체 거실공간을 볼 수 있으며, 벽난로 옆의 창을 통해서 사우나와 수영장을 포함한 건물 안의 외부공간과, 그 뒷배경으로 외부공간을 감싸고 있는 소나무 숲을 볼 수 있다. 거실1에 대조적으로 건물 밖의 영역의 자연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림 18 벽난로 옆 중심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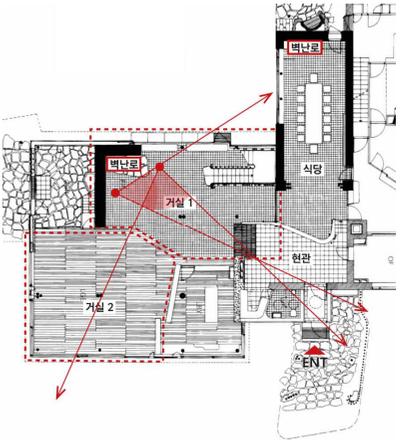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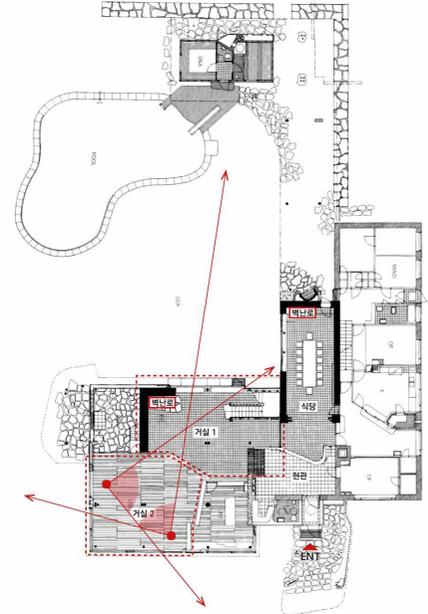
	거실1	거실2
사진		
시선		
구조	벽구조	기둥구조
재료	붉은색 작은 타일 바닥	나무 바닥
분위기	내밀하고 닫혀진	밝고 경쾌한

표 27 거실 공간의 병치

□ 벽난로

거실1의 모서리에 위치한 벽난로는 거실에 적합한 따뜻한 감각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식당의 벽난로는 세 면으로 둘러싸인 벽 구조와 함께 식사 시간에 온기를 주고, 또 간접적으로 요리에 사용되면서 동굴과 같은 내밀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하지만, 이 벽난로는 내밀한 성격의 닫힌 실내공간에서 사용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핀란드에서는 우리와 테라스의 개념이 다르다. 앞의 사례인 무라찰로 주택을 살펴보면 테라스에 특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벽을 세워 테라스를 만들었다. 우리의 개념상으로는 벽이 없이 열려 있는 것이 테라스 이지만, 그쪽은 기후상의 이유로 벽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거실1의 벽난로도 동굴과 같은 공간 안에 갇힌 벽난로가 아니라, 야외 생활을 위한 옥외에 있는 불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벽난로 옆에 위치한 창을 모두 열어 거실과 집 안쪽에 위치한 외부공간과 연결되면, 그야말로 거실1은 테라스의 역할을 하며, 야외활동에 필요한 따뜻한 온기를 벽난로를 통해 얻게 된다.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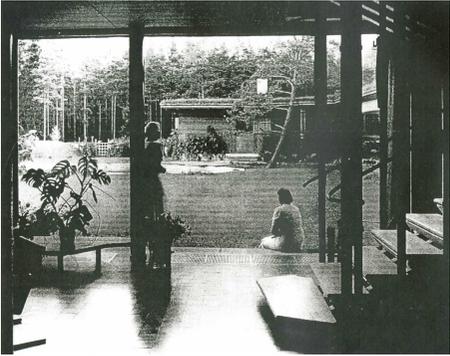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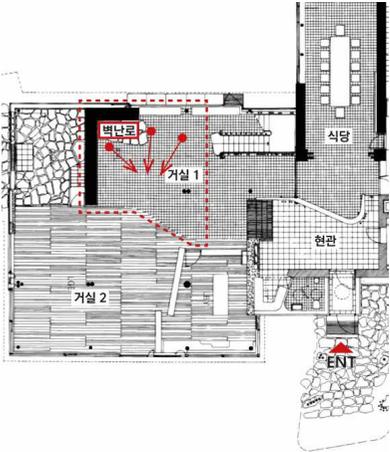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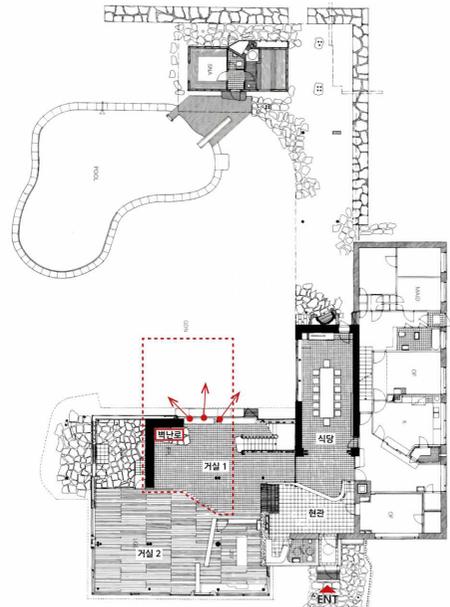
	동굴	테라스
사진		
공간 이용		
공간 성격	축소/ 정적/ 내향적 시선	확장/ 활동적/ 외향적 시선

표 28 거실1의 테라스로의 상황적인 변형

거실1과 거실2는 재료, 구조, 시선의 측면에서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두꺼운 벽과 벽난로가 있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동굴과 같이 닫혀있고 어두운, 불이 있는 공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반대편에 위치하여 지름이 크지 않은 나무 기둥구조와 열려

있는 공간 구성으로 밝고 가벼운 분위기의 공간이 병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의 삶 속에서 각 공간의 성격에 맞는 행위들이 나누어 공간을 점유하거나 동시에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일상의 변화하는 상황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한다.

또한, 거실의 벽난로 뒤편에는 수영장이 있어,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물과 불이 인접하고 있으며, 주택 전체의 공간 구성에서 독립된 사우나 건물과 수영장, 집 안의 벽난로, 그리고 2층에 위치한 겨울정원에 이르기 까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들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묘하게 변화하는 주거 공간을 창조하였다.

거실1의 공간은 벽난로에 의해 벽 구조의 단힘으로 인해 내향적으로 밀도를 가지는 공간으로서의 특질을 가지기도 하고, 테라스와 같은 외부 공간의 외향적인 공간의 특질을 가지기도 한다. 즉, 한 공간 안에 다른 공간의 특질을 서로 겹쳐 놓은 것이다. 테라스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동굴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넘나들며 경험 할 수 있는 것은 삶을 좀 더 다채롭게 해준다.

4.3.3. 차이의 공간을 아우르는 외부공간

빌라 마이레아에서 재료, 구조, 색, 시선 등의 대조로 인해 공간의 분위기와 성격이 다른 공간의 병치와 함께 사우나, 수영장, 난로 등의 집안 전체적으로 차이의 공간들이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무라찰로 주택에서는 시선의 방향, 범위, 영역과 외부공간에의 대응이 각각 다른 공간들이 중정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확장되고 있다.

두 주택에서는 안뜰을 둘러싼 평면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안뜰은 이 주택의 외부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공간들이 주변에 둘러싸면서 배치되어 있어, 외부공간과의 대응을 각각의 성격에 따라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로 다른 분위기의 공간들이 외부공간을 바탕으로 모여 있음으로 인해, 차이가 공존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빌라 마이레아와 무라찰로 여름 별장에서는 매우 개인적인 성격의 닫혀있는 방에서부터 건물 내부에서 밖으로 열려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건물 외부의 공간까지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는 공간의 스펙트럼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혼성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면,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는 공간들이 같이 존재하며 서로 대조되면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차이의 병치를 알 수 있다.

마이레아 주택에서는 벽난로에 의해 벽 구조의 닫힘으로 인해 내향적으로 밀도를 가지는 동굴과 같은 공간으로서의 특질을 가지기도 하고, 외부 공간의 외향적인 공간의 테라스와 같은 특질을 가지기도 한다. 상반되는 성격의 공간을 차이의 중첩에 의해, 상황의 변형이 일어나 다른 분위기와 삶의 행위를 넘나드는 것이다. 이는 차이의 병치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한 공간 안에 다른 공간의 특질을 서로 겹쳐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4. 차이의 역음

4.4.1. Cultural Center in Wolfsburg,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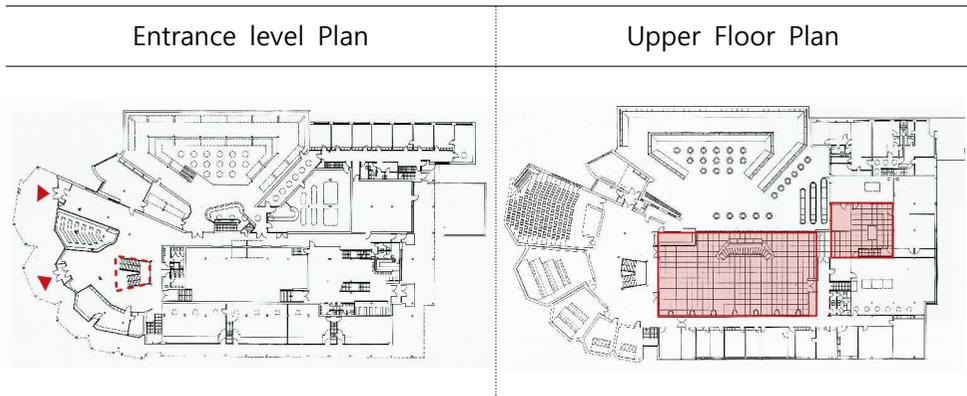


표 29 Cultural Center in Wolfsburg, Germany, 1958-63

□ 형태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는 건물의 1층에서의 진입은 2층의 비정형적인 홀 공간이 연속된 부분 아래의 필로티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필로티 공간을 통해 진입하면, 바로 앞에 위치한 계단을 이용해 중정이 건물 가운데에 위치하여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게 된다. 세이나찰로 타운 홀 과 유사하게 문화센터의 여러 공간이 중정을 둘러싸면서 배치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보통 건물의 메인 홀을 설계 할 때, 메인 홀의 큰 창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이다. 창이 향하는 면을 길 쪽으로 둘 것인지, 안쪽으로 둘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에서는 2층에서 모든 실이 중정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알바알토가 중정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는 서로 크기가 다른 중정이 두 개로 나뉘어져

□ 형태

알바 알토가 공모전의 지명설계로 제출한 작품으로 차량 통행이 잦은 길가의 녹지공원 대지를 잘 이용하여 설계한 건물이다. 각각의 독립적인 건물이 차량의 흐름과 차단되고, 주변의 공원으로 열려있는 중정의 광장을 중심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보행자들은 한층 들어 올려진 중정과, 시청, 그리고 건물 내부를 공원을 통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 공원 안쪽으로 위치한 비정형적인 형태의 행정동들은 중정에서는 연결되지 않지만, 중정 아래의 도로에서 이어지는 진입 층에서 각각의 동으로 갈 수 있는 복도가 위치한다.

앞에서 살펴본 도서관이나 교회의 건물의 경우와 유사하게 도로를 따라 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외부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면한 관리동을 웅벽처럼 길게 위치시켜 다른 오피스 건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하학적인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공의 중요성과 기능에 따라 기존의 주변 상황과 통합하면서 배치되었다.

시청사의 프로그램들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몇 개의 비정형의 건물들에 나뉘어서 배치되어있다. 각각의 건물들은 중정이 위치한 2층에서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지만, 함께 중정을 만들면서 위치하고 있다. 시청사 건물이지만, 공원의 연장에 있도록 조성하여 마을사람들이 공원에서의 중정으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볼프스부르크 문화 센터에서와 비슷하게, 하나의 절대적인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중심을 가지는 중정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주변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청사를 이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위를 수용하는 역할을 중정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3. 다양한 층위의 중심

두 건물 모두 중정 공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중정이 보인다. 큰 중정이 있고 이어져서 밖으로 작은 중정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보조 중심(sub-center)이 있고 전체의 중심(main-center)이 있는 것으로, 건물 내에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다양한 중심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중심과 개별적 성격의 공간이 하나의 건물 안에 공존하면서, 건물의 중심이 되는 중정공간에도 개별성에 대한 고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중정을 중심으로 차이의 공간들이 엮이고 있는데, 각각의 차이들을 존중하여 하나의 일관된 공간이 아닌, 성격과 관계에 따라 다양한 중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외부 공용공간은 다양한 형태와 프로그램의 내부공간이 각각 개별성을 가지고 역할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역으로 다른 요소들과 프로그램이 공용공간의 구성에 기여하며, 중심성의 층위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4.5. 소결

알바 알토의 건축은 공간의 상황에 따른 형태, 구조, 재료 등의 혼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본 장에서 변화하는 삶의 행위를 수용하는 상황의 혼성성을 관점으로 하여 알바알토의 건축을 분석해 본 결과, 그의 혼성적 건축에서 상황의 혼성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의 특질은 차이의 교환, 차이의 공존, 차이의 병치, 차이의 중첩, 차이의 엮음으로 나타났다.

보크세니스카 교회와 라이올라 교회는 직업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주변의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내 공간을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여 커뮤니티 사람들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전체성과 개별성,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라는 차이의 교환에 의해 가능하였다.

세이나요키 도서관과 로마니에미 도서관에서는 형태적인 혼성을 통해 공간의 수직적·수평적 확장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개별성을 가지는 썬큰 공간과 썬큰 공간을 포함한 열람실 전체의 공간을 하나로 인지하게 하는 전체성이 차이의 공존이라는 공간적 특질을 가지고 있었다.

마이레아 주택과 무라찰로 주택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공간들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공간들이 차이의 병치에 의해 서로 대조되면서 다양한 삶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마이레아 주택에서는 벽난로가 있는 거실 공간이, 동굴과 같이 닫힌 공간과 열린 테라스의 공간이 중첩되면서 상황의 변형을 일으켜 차이의 병치 안에서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볼프스부르크 문화센터와 말 시청사는 프로그램들이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있는데, 보조 중심(sub-center)과 전체의 중심(main-center)로 구분되는 다양한 중심이 존재하였다. 차이의 엮음이 나타나는 건물의 중심이 되는 중정공간에도 개별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이다.

알토의 건축에서 상황적 혼성성을 드러나게 하는 다른 요소는 중정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알바 알토는 그의 건축 건반에 걸쳐 외부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모티프를 지속적으로 작품에 적용하였다. 작품마다 크고 작은 규모의 외부공간을 만들면서 외부공간 주변으로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치시켜, 공간의 성격이 다른 개별적인 상황이나 건물을 모아서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차이를 가진 공간들이 모이는 공간, 함께 모여야 하는 공간이 어떻게 디자인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외부공간에서 찾은 것이다. 이렇듯 외부공간은 다양한 캐릭터들의 공간을 묶어주는 공동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들이 단순히 한 자리에 모여 있기만 할 뿐 각기 흩어지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하나로 엮어 각자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인 것이다.

공간적 특징	사례	현상
차이의 교환	Church in Vuoksenniska	커뮤니티와
	Church and Parish Community Center in Riola	외부공간
차이의 공존	Municipal Library in Seinajoki	개별성과
	Library in Rovaniemi	전체성의 공존
차이의 병치	Muuratsalo House	차이를 아우르는
	Villa Mairea in Noormarkku	외부공간
차이의 엮음	Cultural Center in Wolfsbug	다양한 층위의
	Town Hall in Marl	중심 생성

표 31 상황의 혼성성을 수용하는
차이의 상호작용으로써 공간적 특징과 현상

제 5 장 결론

건축에서 건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조나 재료에서 부터 형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혼성적인 현상에 주목하여, 이러한 혼성성이 건축과 도시에서 나타날 때에는 단순한 섞임, 통합으로는 결론 내릴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혼성성을 창조의 긍정적 요소로 바라보는 혼성성 이론의 권위자이자인 호미 바바(Homi. K. Bhabha)의 혼성성 개념을 통해 지금까지 혼성성의 일차원적이고 표면적 이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려 하였다.

혼성성은 서로 다른 개체를 같이 두어 비현실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는 콜라주(collage)와, 두 개체가 합쳐져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융합(fusion)의 범주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바의 혼성성은 문화가 합쳐져서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혼성적인 개체가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혼성화의 사이공간에 머무는 요소들 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혼성성은 개념은 섞여있는 하나의 혼합물로 이해하면 안 되며, 여러 주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멈추지 않는 생산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탈식민주의에서 혼성성은 하나의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는 둘 이상의 요소의 단순하고 직설적 혼합이 아닌, 다중적인 함의를 갖는다. 혼성성은 요소들의 어떤 직설적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식민주의 권력의 생산성과 그리고 그 과정에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바의 이론을 혼성의 현상에 주목하여 바라보면, 그가 말하는 혼성성은 새로운 변종이 생성되는 것, 즉 C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종으로 인한 생성, 생성 결과물 자체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대립, 긴장 등이 혼성성의 주요 성질이자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바바의 혼성성을 건축에 적용하여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벨과 모튼은 바바의 혼성성 이론을 너무 식민주의 상황에서만 보고 해석했다. 아벨은 양식의 혼합이라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만 주

목하였고, 모튼은 외부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소 특수한 ‘박람회’라는 상황에 국한하여 본국과 식민지 국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영향과 혼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건축의 혼성성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삶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를 다시 분석해 보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속의 삶이 혼성의 건축 속에 절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황의 혼성성은 차이의 상호작용으로, 긴장과 갈등이 유지되는 개체의 융합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들의 연속 및 상호반응으로서, 주관적 차원에서의 삶과 객관적·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역사·문화·사회·인종·종교 등의 차이를 내포한다. 이러한 차이의 상호작용이 차이의 융합, 차이의 공존 등의 다양한 성격의 공간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건축역사에서 상황의 혼성성을 살펴보면, 매너리즘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와 행위를 수용하는 주택 평면과, 독특한 공간적 배열과 특징적인 구조 시스템의 혼합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건물에서 수용하여 다양한 삶의 행위를 수용하는 절충주의 건축을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근·현대에 이르러 이전의 문맥과는 무관하게 역사와 현재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단편화하여 적응·병치·대립 등의 난해한 전체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벤츄리가 주장한 복합성과 대립성 등 혼성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혼성적인 건축 형태와 재료사용으로 특히 알바 알토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하지만 알바 알토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수용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상과 고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혼성적인 건축을 추구한 것이다.

알바 알토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로버트 벤츄리는 스케일의 혼성, 형태의 혼성의 관점에서 알토 건축을 보았고, 케네스 프램튼은 주로 시각 대신 촉각을 복원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알토의 건축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두 사람 모두 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벤츄리는

스케일이나 형태에 다소 국한된 논의를 하였고, 프램튼은 재료와 구조, 땅과의 관계 등 좀 더 다양한 혼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상황의 혼성성이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건축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혼성성이 아닌, 삶의 다른 상황들의 공존하고 그러한 공간들이 차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혼성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론가들이 재료, 구조, 형태의 기본적인 층위에 머물고, 촉각에 관한 이야기 또한 재료나 감각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딛고, 더 발전시켜 상황의 혼성성을 바탕으로 공간의 상황, 공간의 캐릭터의 차원으로 알토의 건축을 분석한다. 혼성성의 특징이 나타나는 알토 작품을 크게 교회, 도서관, 주거, 공공건축의 네 가지의 분류 아래의 대표적인 건물을 두 가지 선택하여, 각각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혼성성을 분석하고, 그러한 상황의 혼성성이 나타나는 양상과 공간의 특성을 밝힌다.

그의 대표적 건물들을 분석한 결과, 알바 알토의 혼성적 건축에서 상황의 혼성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의 특질이 차이의 교환, 차이의 공존, 차이의 병치, 차이의 중첩, 차이의 엮음으로 나타났다. 전체성과 개별성,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라는 차이의 교환, 개별성을 가지는 공간과 하나로 인지되는 전체성의 차이의 공존이 교회와 도서관 건축에서 관찰되었다. 그리고 주거 건축에서는 각각의 공간들이 차이의 병치에 의해서 대조되면서 다양한 삶의 행위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차이가 중첩되면서 상황의 변형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공공 건축에서는 차이의 엮음이 나타나는 건물의 중심이 되는 중정공간에도 개별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를 관통하면서, 외부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나 중세 이탈리아의 캄포 시에나와 같이, 다른 성격의 차이의 공간들을 포용하여 각각을 드러나게 해주는 공동의 기반으로 중정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Hybridity

Filipe Hernandez, *Bhabha for Architects (Thinkers for Architects)*,
Routledge, 2010.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07.

David Huddart, *Homi K. Bhabha*, 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06.

Robin Evans, *Translations from Drawing to Building*, Cambridge,
Mass. : MIT Press, 1997.

Chris Abel, *Architecture and Identity: responses to cultural and
technological change*, Oxford ; Boston : Architectural Press, 2000

Patricia A. Morton, *Hybrid Modernities: architecture and
representation at the 1931 Colonial Exposition, Paris*, MIT
Press, 2000.

Avtar Brah and Annie E. Coombes(eds), *Hybridity and its
discontents : politics, science, culture*, London ; New York :
Routledge, 2000

Georgia Warnke, *Gadamer :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Cambridge : Polity, 1987.

Lisa M. Hanley, Blair A. Runle, and Allison M. Garland (eds),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Urban Communities:
Renegotiating the City*,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8.

Canclini, Nestor Garcia. *Hybrid cultures: Strategies for Entering and
Leaving Modernity*, Trans. Christopher L. Chiappari and Silvia
L. Lopez.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5.

- Kraidy, Marwan M, *Hybridity, or the Global Logic of Globalization*, Philadelphia: Temple UP, 2005.
- 로버트 벤투리와 데니스 스콧 브라운, 유혜경 옮김, 기호와 시스템으로 읽는 건축, 애플트리태일즈, 2009.
- 데이비드 허다트, 조만성 옮김,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도서출판 엘피, 2011.
- Jin Baek, Kitaro Nishida's Philosophy of Emptiness and Its Architectural Significance,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2008.
- Jin Baek, Paradox of Critical Subjectivity and Identity: Revising Critical Regionalism, 대한건축학회 영어논문집, 2011.
- Park, K., Urban spaces and politics of hybridity: repoliticizing the depoliticized ethnicity in Los Angeles Koreatow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5), 2005.
- 김용규, 포스트민족 시대 혼종과 틈새의 정치학: 호미 바바 읽기, 비평과 이론 제 10권 1호, 2005/봄·여름: 29-57
- 송병선, 카리브해의 혼종성과 정치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제 18호, 2004.
- Nihal Perera, Contesting visions: hybridity, liminality and authorship of the Chandigarh plan, *Planning Perspectives*, 19, 176-199, 2004.
- 정소미, 이연숙, 다문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8권 2호, 2006.
- 이정옥, 혼성의 건축, 건축문화, 1991.
- G. B Nalbantoglu and C.T. Wong (eds), *Postcolonial space(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7.
- David Leatherbarrow, *The Roots of Architectural Invention: Site, Enclosure, Materi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Ibid, "Leveling the Land or How Topography Is the Horizon of Horizons" in *Topographical Stories: Studies in Landscape and Architecture (Penn Studies in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권형표, 전유창, 구영민, 컨텍스츄얼리즘에 대한 콜린 로우와 로버트 벤 추리의 사유와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 1999.

임영방,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 건축에 있어서의 다의성과 절충주의, 예술문화연구 3 권, 서울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1993.

박진배, 탈근대 건축의 표현적 특성과 그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1994.

Abdul Razak Abdul Rahman, The Traditional Malay Architectural World View(with Empasis on the Role of the Tukang), Jurnal Alam Bina, 1999.

주서령, 고영은,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루마 팽홀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 19권 6호, 2010.

□ Alvar Aalto

Alvar Aalto, *Alvar Aalto in his own words* / edited and annotated by Göran Schildt, New York: Rizzoli, 1998.

Alvar Aalto, *Alvar Aalto : between humanism and materialism* / edited by Peter Reed ; with essays by Kenneth Frampton,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98.

Aalto, Alvar, Timo Tuomi, Kristiina Paatero, Eija Rauske, *Alvar Aalto in seven buildings : interpretations of an architect's work*, Helsinki : 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1998.

Markku Lahti, *Alvar Aalto*, The Finnish Building Centre, 1998.

Fleig Karl and Aalto Elissa, *Alvar Aalto 1-3*, Basel ; Boston : Birkhäuser Verlag, 1995.

Richard Weston, *Alvar Aalto*, Phaidon press Limited, 1995.

편집부 역, ALVAR AALTO = 알바 알토 , A+U, 1988.

Giedion, S.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5th ed.,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Keneneth Frampton,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d Architecture of Resistance,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ited by Hal Foster, The New Press New
York, 2002

Kenneth Framton, *Modern Architecture*, W W Norton & Co Inc,
2007.

Kenneth Frampton and John Cava, Reflections on the Scope of the
Tectonic, *Studies in Tectonic Culture: The Poetics of
Construction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 Edition 3, MIT Press , 2001.

김연준, "알바알토의 천창유형 및 진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23, 2007., 45-52, 대한건축학회

김수미, "알바알토 건축의 전환기적 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27, 2011., 49-56, 대한건축학회

Abstract

**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Hybridity
: Homi K. Bhabha's Hybridity and
Alvar Aalto's Hybrid works**

Minjeong Ka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 Hybridity. Situational hybridity, Hybrid, Alvar Aalto,
Colonial architecture**

Student Number : 2011-20576

Hybridity is often recognized as filthiness and impurity in contrast with the purity of an indigenous culture. However, this paper explores hybridity as a positive source of creation. It demonstrates how hybridity arises to a level where the combination of trite semantic references is transcended through the fusion of different horizons.

Among the theories of hybridity, the one by Homi K. Bhabha, a leading theorist of postcolonialism, and its discuss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discrete hybridity operates as the basis for the analyses of architecture. In particular,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notion of 'situational hybridity' which applies not to colonial architecture but to a general architecture.

This study analyzes existing trends in architectural history and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situational hybridity'.

The discussion of the works of hybridity will lead u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ybridity of form, structure, and material and its realization of 'situational hybridity'. In concretizing our investigation, we will look in depth into the works of Alvar Aalto. So we will introduce and explore four groups of Aalto's projects that embody hybridity. We will look into how the situational hybridity arises from the interaction with spaces of difference and what is the architectural significance of hybridity.